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59호

Wednesday, July 3, 2024 A

## 바이든 43% vs 트럼프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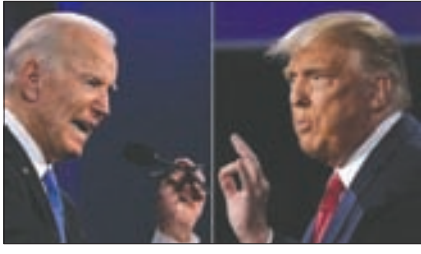
### 부통령 해리스 등판하면 2%p 격차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대통령 후보교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사진 왼쪽)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이외의 다른 후보를 내세우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토론 이후인 지난달 28~30일 유권자 1천2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시 두 후보는 각각 43%와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오차범위(±3.5%) 내 박빙 구도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여성과 무당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대결 시에는 여성 응답자의 44%만이 바이든 대통령에 지지를 보낸 반면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절반인 50%가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무당층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34%만이 무게를 실은 반면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43%가 우호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 시 지지율은 43%와 48%, 피트 부티지치 교통부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

결 시 지지율은 각각 43%와 47%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또 다른 '잠룡'으로 거론되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대결은 42%대 47%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고스란히 노출한 첫 토론 이후 참모들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 측은 여론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언론이 위기를 키우고 있을 뿐이라며 위기를 잠재우는데 주력해 왔다.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 아들 헌터 바이든 등 가족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CNN을 포함해 속속 발표되는 여론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후폭풍'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및 민주당에 우호적인 응답자의 56%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이외의 후보를 내세울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 7면 '바이든vs 트럼프' 로 이어집니다

## 이재명 측이 수사검사 심문할 판 민주당, 검사 4명 탄핵절차 돌입

### 탄핵안 바로 표결 않고 법사위 회부 법사위에 이재명 변호인 의원 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



이원석

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들에 대

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유성운·정진우·양수민 기자

▶ 2면 '검사 탄핵' 로 이어집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는데..." 시청역 참변 현장에 추모 발길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현장에 2일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누군가 안전펜스에 붙인 추모 쪽지에는 '애도를 표하며 고인들의 꿈이 저승에서 이뤄지길 바랍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혀 있다. 김성룡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 김홍일 면직안 재가... 야당 “꼼수사퇴, 끝까지 심판”

(방통위원장)

김홍일, 탄핵안 보고 전 자진사퇴  
대통령 “대결정치 반복, 국민고통”  
야당, 언론 관련 국조요구서 제출

김홍일 방통통신위원장이 2일 전직 사퇴하면서 여야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23분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김홍일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몇 시간 전 이뤄진 조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 탄핵안을 받아들였다.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내 표결하는 원칙

에 따라 4일 표결에 부쳐지고, 가결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까지 정지되는 수순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재가한 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

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것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박찬대 당 대표 대행은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꼼수 사퇴했다”며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린(run)홍일”(최민희 의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은 6개 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방송장악 시도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방송통신심의위 민원사주의혹 ▶YTN 민영화 적정성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이 아닌 발의 시점부터 대상 공무원의 사직·해임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병에 방통위가 또다시 위기에 놓였다”며 “탄핵 남발의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적반하장으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관례에 따라 여(6명)·야(3명) 추천 인사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의 새 이사로 선임되면 친야(親野) 성향 인사가 다수인 구성이 여당 우세로 바뀐다. 탄핵 추진이 이를 막기 위한 시도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금명간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다. 후보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사장을 포함해 복수의 후보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현일훈·김효성 기자**

## 이원석 “민주당, 재판권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1면 '검사 탄핵'에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사 4인의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탄핵안을 바로 표결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로 넘겨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친명 일색인 민주당 법사위원 중엔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 의원도 있다. 국회에서 피고인 측이 검사를 심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는 '법사위가 탄핵안의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 다시 넘길 수 있다'는 국회법 130조가 근거다. 그러나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과정에서선 생략했던 절차다.

당시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에 넘겨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탄핵 소추는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법사위 회부는 정치권에서 “이번에도 기각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안을 바로 의결하기보다는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최대한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야권 의원)로 해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왼쪽)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둘째)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차·부장 전원이 동행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의 위헌·위법 요소

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 감사·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한 국정감사법(8조)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국회의원으로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입장 발표 후 약 3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안에서 탄핵 소추안이 심판을 통해 가결될 거라 믿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 탄핵이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총장은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며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사실상 수사권을 박탈하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라며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입법독재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낭떠러지 바로 앞까지 몰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성운·정진우·양수민 기자**

**워싱턴 날씨 (°F)**

4일(목)	92~74	7일(일)	91~73
5일(금)	93~75	8일(월)	90~73
6일(토)	92~73	9일(화)	87~72

7월 3일(수) 89~7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9일부터 DC 나토정상회의 열린다

8일부터 도심 주요 지역 차량 통제 일부 구간 보행자 접근도 불허



은 통제가 이뤄진다. 연방수사국(FBI)은 나토정상회의를 겨냥한 구체적인 테러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행사 전후에 각종 반체제화 시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운행이 금지된 도로구간이 89개, 보행자 접근이 통제되는 구획이 모두 45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해 나토의 37개국 정상 혹은 외무장관이 초청됐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은 올해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았으며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를 운행하게 된다. 유리엘 바우저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시간을 걸릴 것이라고 각오하고 워싱턴DC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멜론 오디오리엄은 9일부터, 백악관 주변은 10일부터 완전 통제된다. 하지만 주요 행사장인 워싱턴 컨벤션 센터와 카네기 도서관, 마운트 버논 스퀘어 등은 8일부터 11일까지 가장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려 도심 주요 도로 구간 통행이 통제되며 일부 지역의 경우 보행자 접근도 금지된다.

워싱턴DC는 지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나토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으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안이 한층 강화돼 워싱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회의장으로 쓰이는 멜론 오디오리엄, 워싱턴 컨벤션 센터, 페더럴 트라이앵글 주변 지역은 8일부터 전면 통제에 들어간다.

행사장 근처 메트로역 2곳과 20여개의 버스 노선도 중단되거나 우회 루트

# 싱글하우스 렌트 30% 5천불 이상

VA 알링턴, 워싱턴DC 등



워싱턴DC를 중심으로 495벨트웨이 안쪽의 싱글하우스 렌트비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부동산거래 사이트 포인트 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의 렌트용 싱글하우스의 29.67%가 월 렌트비 5천달러 이상이였다. 3.3%는 월 렌트비가 1만달러를 넘었다.

워싱턴DC의 경우에도 29.09%가 월 렌트비 5천달러 이상이었으며, 2.55%가 1만달러 이상이었다. 월 렌트비 5천달러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 어바인(74%), LA(60%), 보스턴(43%)였다. 월 렌트비 1만달러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A로 29%에 달했다. 연방센서스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렌트 시장에 나온 싱글하우스는 모두 1400만채로, 전체 렌트 주택의 32.5%를 차지한다. 연소득 15만달러 이상 렌트 세입자는 2017년 이후 두배로 증가했다.

싱글하우스 렌트 주택 신규 공급 건수는 펜데믹 이후 크게 증가해, 2023년에만 3만7500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싱글하우스 렌트 주택 신규 착공 건수는 4만5천채에 이른다.

김윤미기자

# 워싱턴 지역 가뭄, 식수 부족 우려

연방기상청(NWS)가 워싱턴 지역 일원에 가뭄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해안 도우 국립공원 측은 수량 부족을 이유로 낚시 금지령까지 내렸다.

NWS는 지난 5월 이후 워싱턴 지역 강수량이 예년 평균보다 30% 이상 적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가뭄경보가 내려진 상태.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포토맥강 수위가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위가 계속 하락하면서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강 내부의 섬들이 속속 드러나 보이는 진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경계 지역인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근처에 여러 섬들이 돌출해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 주정부 측은 포토맥강 본류와 지류 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상류 저수지 방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토맥강은 워싱턴 지역 식수원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워싱턴 DC와 알링턴 카운티 수도물은 100%

포토맥강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토맥강이 오염될 경우나 식수원 고갈 등의 사태를 대비해 대체 식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작년년부터 워싱턴 지역이 심각한 가뭄 재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초부터 현재까지 워싱턴 지역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최대 26인치 이상 적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기상청이 매 주 업데이트하는 가뭄 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과 메릴랜드 서부 지역을 포함해 인터스테이트 81번 도로를 따라 '심각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됐다.

박세용 기자



새벽의 화마 메릴랜드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카운티 소재 한 아파트에서 2일 새벽 3시45분경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어린이가 중상을 입었다. (PG 카운티 소방국 제공)

# “2시간 동안 두번이나 떴강도”

요금복 상점 몰루레론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요금복 매장 몰루레론에서 2시간 동안 두번의 매장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일(월) 오후 5시경 두명의 여성이 고가의 요금복을 커다란 쇼핑백에 담고 달아났다.

오후 7시11분 경에 세 명의 여성이 매

장에 들어와 닦치는대로 요금복을 챙겨서 달아났다.

세 명의 여성 중 두명은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당국에서는 두 사건의 범인들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매장 직원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들이 유유히 사라진 뒤에 경찰이 나타나 검거에 모두 실패했다.

김윤미기자

**부고**

미드웨스트대 고유경 학장 별세

미스웨스트 대학교 고유경(사진) 학장이 지난달 27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유가족으로는 부인 박경희, 장남 요한, 차남 유한, 장녀 은애, 며느리 이민정씨가 있다.

고별 예배는 지

난 2일 버지니아 센터빌 소재 와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진행 됐으며, 하관예배는 5일(금) 오전 10시 페어팩스 푸너럴 홈(9900 Braddock Rd, Fairfax, VA)에서 열린다.

>문의: 214-507-1372, 571-213-9296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전국아시안검사협 한인 지부장 선출

전국아시안검사협회(NAPIPA) 초대 서북미 지부장에 한인 여성 검사가 선출됐다.

시애틀 지역 한인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애틀 킹카운티 검찰청사에서 열린 NAPIPA 서북미지부 창립 모임에서 해나 이 킹카운티 검사가 초대 지부장에 선임됐다. 이 검사는 시애틀대학 법대를 졸업한 뒤 스노호미시 검사로 재직했고 현재는 킹카운티 검사로 근무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인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 주도로 출범한 것으로 알려진 NAPIPA 서북미 지부는 북가주와 남가주, 시카고, 뉴욕, 샌디에이고, 조지아, 미네소타에 이어 NAPIPA의 8번째 지부다.

장수아 기자

### '성폭행' 한인 나사엔지니어 범행에 몰카장착 안경 사용

수년간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우주국(NASA)의 한인 엔지니어가 범행 시 카메라가 숨겨진 안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으로 얼굴이 알려진 NASA의 엔지니어 에릭 심(37·사진)씨는 지난 2월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 4월에는 4건의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일 ABC7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은 앞서 심씨의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많은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비디오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씨가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숨겨진 카메라가 있는 안경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했고, 지난달 21일 심씨의 집으로 다시 영장을 집행해 14개의 안경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심씨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그의 안경을 침대 옆 테이블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 한인 노인 살해범 감형, 요양원에 벌금만

## 해피홈케어 사건 그후 1년

유가족측 솜방망이 처벌에 분개 중국계 범인 20년뒤 가석방 추진 검사장 선거 앞 정치적 압력 주장 "정의 실현 위해 도와달라" 호소

1년 전 다이아몬드바 지역 해피홈케어에서 한인 시니어 2명을 살해한 중국계 간병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유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24일 요양원의 중국계 직원 지안천 리(41)가 모니카 이(75)씨와 박희숙(83)씨 얼굴에 비닐백을 씌우고 목에 테이프를 감아 질식사 시킨 사건이다.

유가족들은 현재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오는 11월 선거를 앞

## 중양일보 CBRE

### 한인 운영 남성홀에서 한인 시니어 2명 피살



본지 2023년 6월 26일자 미주면.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용의자를 조기 석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숨진 박희숙 씨의 셋째 아들인 제이 박(50)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주 사건을 담당하는 카운티 검사로부터 범인이 20년 후에 가석방되도록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두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을 일찍 풀어주려는 이유가 정치적이란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범인을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며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가족의 이러한 주장은 기소와 관련한 특별 승인에 기인하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유가족은 형사 재판에서 범인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특별 승인을 받아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내부 압력으로 인해 담당 검사가 오는 11월 용의자의 변호인단과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형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에 대한 예심은 오는 8월 8일에 진행된다. 본지는 지난달 28일 LA카운티 검찰에 심리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1일 현재 받지 못한 상태다.

박씨는 "담당 검사가 범인이 수감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모범수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했다"며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3명을 살해한 범인이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는 "현재 사법 시스템은 아시아인 시니어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해피홈케어 역시 사건 발생 이후 벌금 조치만 받았을 뿐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해피홈케어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씨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식을 제공한다"는 설명에 어머니가 입원했다가 어처구니없이 살해당했다"며 "노인을 돌본 경험도 없고 합법적인 자격도 없는 사람을 채용한 해피홈케어는 수백 달러의 벌금만 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박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인 커뮤니티에 부탁했다.

장연화 기자

## "2명 피살된 요양원 정상 영업 말되나"

### 해피홈케어 유가족 인터뷰

벌금부과만 - 추가 조치 없어 힘없는 시니어 억울한 죽음 연루자 합당한 처벌 받아야

다이아몬드바에 있는 요양시설 해피홈케어에서 거주하다 간병인 직원에게 목 졸러 피살된 박희숙씨의 셋째 아들 제이 박(50)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박씨는 "마침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해서 해피홈케어에 갔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발생했다"고 허망해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나요.

"어머니 주치의와 진료 약속이 잡혀 있어서 그날 아침 일찍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해피홈케어에 갔다. 그런데 직원이 문

앞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았다. 경찰은 건물 주위에 줄을 치고 지켰다. 밖에서 계속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 설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어떻게 알게 됐나요.

"경찰들이 휠체어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눈에 익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 같았다. 그런데 앰블런스가 오더니 시니어 4명을 태우고 갔다. 그 속에 어머니는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속 밖에서 기다렸다. 밖에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렸을 까. 직원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 집에 오니 형사한테 연락이 왔다."

-해피홈케어는 어떻게 입주하게 됐나요.

"에이전시의 소개로 알게 됐다. 어머니는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너싱홈에서 2년 넘게 지냈었다. 그곳은

20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거주하는데 개인적인 돌봄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고도 있었다. 에이전트가 해피홈케어는 입주자가 적어서 더 잘 돌보고 음식도 한식으로 제공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소개해 이점을 결정했다. 어머니가 메디케어를 갖고 있어서 이전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옮긴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1년 만에 인터뷰하는 이유는.

"솔직히 정신이 없었다. 장례 치르고 검찰청에 다니고 변호사 만나러 다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1년이 지났다. 그런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검사는 범인이 가석방될 수 있다고 했다. 범인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힘들게 절차를 밟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풀어준다는 게 너무 허무했다. 힘없는 시니어, 늘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아시

안이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해피홈케어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직원을 잘못 채용해서 벌어진 일인데 몇백 달러의 벌금으로 ended 일이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아나요.

"사건이 발생한 후 몇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랬다가 최근 정신을 차리고 당국에 신고했더니 설명을 해주더라. 담당자는 사건 발생 후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돼 조사했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별도의 추가 조치는 없다고 했다. 시설에서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 그런데 벌금부과로 끝나는 게 말이 되나. 정부의 행정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하고 싶은 말은.

"두 명의 한인 시니어가 이유 없이 살해됐다. 형사 사법 시스템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유가족들은 절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연화 기자

## 정신질환자 또 경찰 총격에 사망

부모의 여러 차례 만류에도 진입해 비무장 환자에 발포

한인 양용씨가 경찰총에 맞아 숨진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이 또 경찰

총격에 희생됐다.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게 "자신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제발 기다려달라"고 수차례 당부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최근 다운니 지역 그레이 로드 인근 한 주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알베르토 니콜라스 아레나스(29)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5분 쯤 발생했다. 당시 아레나스는 폭죽을 터뜨리다가 이웃과 언쟁을 벌였다. 이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레나스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다.

가족에 따르면 아레나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최근 의료용품 회사에 취직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등 최근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고, 아레나스만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동생인 사만다는 "경찰이 우리에게 오빠가 무기를 가졌는지 계속 물어봐서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오빠는 단지 정신적으로 불안했을 뿐인데 경찰이 왜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장열 기자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10명 중 4명 “빛내서 여행간다”

### 26% 신용카드로 일단 지불 수차례 걸쳐 분할납부 계획 용자나 친지 차용도 5~6%

성인 10명 중 4명이 올여름 빛을 내서라도 여행에 나설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전문매체 뱅크레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6%가 여름 시즌 여행을 위해 빛을 낼 계획이라고 CNBC가 최근 보도했다.

여행객 중 26%는 여행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여행 경비 충당 방법으로는 친구매우지불 서비스 이용 8%를 비롯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차용 6%, 개인 용자 5% 등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 이상이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충당한다는 결과에 대해 뱅크레이트의 신용카드 담당 테드 로스먼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우려스러운 것은 신용카드 이자율이 평균 20%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비싼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행을 위해 빚을 지겠다고 답한 비



여름 시즌을 맞아 LA국제공항 톰브래들리 국제선 청사에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율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밀레니얼과 Z세대가 각각 47%,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 심리학자인 사브리나 로마노프는 “사람들이 빛을 지고 휴가를 떠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로 자녀들이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이 꿈인데 빚을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다면 자녀들이 평생 간직하게 될 추억을 위해 지출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비용 마련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미리 계획을 세운 후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로마노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행 중에는 지출을 쉽게 하게 되기 때문

에 음식, 액티비티, 교통 등 여행 중 드는 경비 예산을 항목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결정되면 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짜야 하는데 월급의 일부분을 떼어내 저축하는 것이 추천된다.

항공사 상용 고객 마일리지 프로그램 또는 신용카드 리워드 등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비수기에 떠나는 것도 여행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로스먼 애널리스트는 “성수기 대신 비수기, 비행기 대신 자동차, 주말 대신 주중 여행 등 경비에 따라 여행지와 시기를 선택한다면 절약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연성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박익희 기자

## 한국산 ‘수삼’ 미국 수입 한미간 검역 협상 타결

한국 농가에서 재배한 수삼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또 텍사스산 자몽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이런 내용의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수삼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고, 지난달 24일 미국 검역당국은 한국산 수삼 수입 허용을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한 것이다.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한 뒤 검역본부 수출검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수출검역요령을 오는 9월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2019년부터 텍사스산 자몽을 수입하기 위한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고, 올해 3월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이 확정돼 이달 협상이 마무리됐다.

## 도요타 랜드크루저 재출시 기본형 5만5950달러부터

도요타가 지난 2021년 배출가스 이슈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를 중단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랜드크루저(사진)를 재출시했다.

랜드크루저의 기본형 모델은 랜드크루저 1958로, 시작가는 5만5950달러다. 랜드크루저는 6만1950달러, 퍼스트 에디션은 7만4950달러다.

이전 모델이 8만500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 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외관은 사각진



복고풍이 특징이다. 4륜구동을 유지한 한편 규격은 제조 중단 이전 모델 대비 폭을 4.4인치, 길이를 1.2인치 줄여 비포장도로서 가동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서재선 기자**

## 로젠버그 “주택시장, ‘기괴한 세계’ 접어들어”

### 수요 감소·공급 증가 등 왜곡 미분양 재고 3.7개월 최고치

주택 시장에서 수요는 감소하는 한편 공급은 늘어나고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로젠버그 리서치의 회장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에 따

르면 5월 기준 주택 매매 건수는 411만 채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반면 5월 판매 가능한 기존 주택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급증했다.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공급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5월 주택 가격 중간값은 전년 대비 5.8% 상승해 41만9300달러를 기록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경제학의 핵심 원리지만 주택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로젠버그는 “미분양 재고 잔고는 2

월 2.9개월 공급량에서 3월 3.2개월, 4월 3.5개월, 5월 3.7개월로 증가해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수요는 4개월 만에 최저치, 공급은 4년 만에 최고치, 가격은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말 머리를 굴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약 7% 수준으로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와 연관이 있다.

높은 대출 비용에 신규 주택 구매가 차뒀던 데다 다음 주택 구매에서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를 받고 싶지 않은 기



주택시장에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는데 가격이 되레 오르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존 주택 소유자들도 구매에 나서지 않아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셈이다.

하지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주택 가격 상승의 역학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게 로젠버그의 지적이다.

그는 “언젠가는 금리든 가격이든 무언가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을 하기도 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학소통) 웨일리노래방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 “세탁기 문 안 열려요”... 해결에 3불

비대면 설치·수리 서비스 호황  
방문 않고 줌으로 의뢰인 교육  
100불 들일 거 3불이면 고쳐



가전제품 수리기사가 영상통화로 고객에게 설명하는 모습. [프론트도어 홈페이지 캡처]

텍사스주의 전기기사 알리슨 살링은 최근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재택근무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직업이지만, 이제 영상통화만으로도 충분해졌기 때문이다. 수리가 필요한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고객에게 천장에 선풍기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게 주 업무가 됐다.

이 같은 비대면 집수리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전했다. 설치·수리기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나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실감나게 의뢰인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살링은 “이전엔 90분 거리를 오가며 일했지만,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엔 전원생활과 ‘워라밸’을 즐기고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과거 같으면 멀어

서 방문이 어려웠던 일도 받으니, 별이도 좋아졌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유럽의 수리 의뢰를 받는 사람도 생겨났을 정도다.

이런 비대면 설치·수리 서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부인의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의 수요로 등장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세탁기 문이 안 열려요’와 같은 사소한 의뢰도 들어오는데, 방문기

사를 불렀다면 100달러가 들었을 테지만 비대면으로 3달러면 충분하다. 가전제품 수리기사인 셰인 스투어트는 “대부분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생기는 단순한 문제가 많다”고 신문에 말했다.

설치·수리 방문을 위해 시간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비대면 설치·수리는 짧게는 15분, 길어도 2시간쯤이면 마친다.

코로나19 기간에 주목받았던 줌

(Zoom) 등 화상회의 플랫폼도 비대면 서비스 시장을 키우는 요소로 거론된다. 줌의 경우 가상 팀스틱 효과를, 구글 미트의 경우 눈 밑 다크서클을 제거하는 필터를 제공하는데, 맨 얼굴도 화장한 얼굴처럼 바꿔주는 이런 기술로 영상통화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대면이 방문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냉난방 기계 수리기사인 브라이언 잭슨은 WSJ와 인터뷰에서 “고객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난감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고객이 에어컨 부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 몇 분간 논쟁을 벌여야 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론 화상 설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대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론트도어(Frontdoor)에 따르면 전체 의뢰 중 약 40%는 작업이 복잡해 결국 방문 업체로 연결해준다고 한다.

장윤서 기자

## 브리프

### 보잉, 스피릿 47억불 재매입

보잉이 항공기 부품 공급업체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이하 스피릿)를 분사 20년 만에 47억 달러에 다시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잉은 스피릿을 2005년에 분사했지만, 여전히 스피릿의 최대 고객으로 있었으며, 사고 발생으로 20년 만에 다시 자신들의 품으로 거두게 된 셈이다. 보잉은 수개월간의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항공기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피릿이 보잉에는 동체를, 유럽 에어버스에는 날개를 각각 공급해온 만큼, 이번 인수 협상에는 에어버스도 개입했다.

보잉과 스피릿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거래 조건을 승인했으며 다음 날인 7월 1일 오전에 공식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잉은 스피릿 1주당 37.25달러로 평가해 애초 계획한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 차두고 통근하면 1000불 지급

우버가 차 한 대 줄이기(One less car) 시범 서비스를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DC, 마이애미로 확대한다.

지난달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우버가 5주(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동안 통근 시 자가용 이용을 포기하는 175명의 LA운전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출퇴근할 때 시범 기간 자신의 차 대신 걷기, 대중교통, 자전거,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해당 도시 거주자이며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하루에 3번 이상 사용하는 개인차량, 은행 계좌,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

참가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구용 앱을 설치하고 체험을 기록하는 짧은 비디오를 촬영해야 한다. 신청은 웹사이트(uber.com/us/en/u/one-less-car/)에서 하면 된다.

## ‘사후재산 1300억불’ 버핏, 유언장 바꿨다

### “세 자녀 공익신탁에 줄 것” 게이츠 재단 사후 기부 중단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93사진)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재산 거의 전부를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공익 신탁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최근 보도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것이 유언장 일부를 최근 변경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미 버크셔 주식의 절반 이상을 기부했고, 현재 보유한 주식은 이날



기준 약 1300억 달러에 이른다. 버핏 회장은 2006년에 평생 게이츠 재단 등 5개 재단에 매년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재산의 용처는 불

분명했다.

그는 그동안 해왔던 게이츠 재단 기부는 사후엔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최대 자선재단 중 하나로 세계 보건, 빈곤, 성평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버핏 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에 393억 달러를

기부했다.

버핏 회장은 “우리만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는 80억 명이 있고, 나와 내 자식들은 1% 중 가장 운이 좋은 100번째 안에 든다”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공익 신탁은 신규로 설립된다. 부친의 뜻에 따라 그의 맏딸과 두 아들은 어떤 자산 목적으로 돈을 쓸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 버핏 회장은 “세 아이의 가치를 아주 좋게 본다”며 “그들이 어떻게 할지 100% 신뢰한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 팔 잘린 직원 사망케 한 고용주... 분노 터진 이탈리아

팔이 잘린 인도인 이주 노동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고용주가 체포됐다. 2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경찰은 이탈리아 로마 남부 라티나 지역에 있는 농장 사장인 안토넬로 로바토(38)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라티나 검찰은 성명을 통해 숨진 인도인 이주 노동자 사남 싱(31)의 사인이 과다출혈로 확인됐으며 “싱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

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의자(로바토)는 자신이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인간 생명을 등한시한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라치오 인도인 공동체의 구르르크 싱 회장은 “우리는 이 소식을 기다렸다”며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의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싱은 지난달 17일 로바토의 농장에서 작업 도중 농기에

여섯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팔이 절단되고 하반신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고용주인 로바토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로바토는 도움을 요청하는 싱의 아내에게 “가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심과 심의 아내, 그리고 절단된 팔이 담긴 과일 상자를 화물차에 실은 뒤 집 근처에 버리고 사라졌다.

싱은 뒤늦게 로마의 산 카를로 포를랄리니 병원으로 이송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 바비큐 그릴 판매 감소세 코로나19때 정점 후 하락



독립기념일 등 바비큐 성수기가 시작됐지만 바비큐 그릴 판매는 감소했다.

1일 CNN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급성장했던 바비큐 그릴 시장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급 그릴 제조업체 트래거는 그릴 판매량이 2021년 2분기의 1억5610만 달러보다 최근 7680만 달러로 50.8%나 급락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그릴 판매량 하락 원인으로 ▶그릴 소유한 소비자가 많아서 ▶유류 가격 상승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채식 가구 증가 등을 꼽았다. 베스트셀러 그릴 브랜드 웨버, 휴스피코, 지역상점들도 그릴 판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바비큐 제품 판매 업체 웨스트코스트 바비큐 슝의 브라이언 부시필드 총괄 매니저는 “6월 초가 바비큐 그릴 판매의 가장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매출이 부진하다”고 말했다.

정하은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입제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빌딩 3층

# 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선고 늦춰질듯

### 검찰도 "연기요청 수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돈'의 형량 선고일을 늦춰 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담당 판사가 선고일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최소 수주일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뉴욕 맨해튼지법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 "실의가 없다"면서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과 관련해 선고일 연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요청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변호인 측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마천 판



뉴욕 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사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대법원 결정 내용을 파악하고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오는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오는 1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였다.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초기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 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포함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보호로 인해 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 바이든측 "토론 후 여론조사 변화 없다"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TV토론 '졸전'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측은 자체 조사에서 토론 후 지지율 변화가 없으면서 일각의 대선 후보 교체론에 대한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strong)를 보였고 토론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flat)고 밝혔다. 대선캠프 여론조사 담당인 물리 머피는 이 자

리에서 "유권자들은 토론을 보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다"면서 여론조사 유권자 이탈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대선캠프 부매니저 쿠엔틴 포크스는 "언론이 지나치게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는 토론 자체보다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 운동에서 방어적 자세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참모들과 '토론 폭망' 사태 대응 차원에서 포럼에 참석하거나 기자회견 내지 언론 인터뷰를 하는 방안 등도 참모들과 논의했으나 전날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에서 "유권자들은 토론을 보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다"면서 여론조사 유권자 이탈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대선캠프 부매니저 쿠엔틴 포크스는 "언론이 지나치게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는 토론 자체보다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 운동에서 방어적 자세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그는 9월로 예정된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 준비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화상회의 참석자들이 CNN에 전했다. 딜런 의장은 또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급락 우려와 관련, 자체적인 내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강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 운동에서 방어적 자세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참모들과 '토론 폭망' 사태 대응 차원에서 포럼에 참석하거나 기자회견 내지 언론 인터뷰를 하는 방안 등도 참모들과 논의했으나 전날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장관 "우크라이나에 3.2조원 추가 안보 지원 곧 발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2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루스벨트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개최한 회담에서 끝이 같은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에는 대(對)전차 무기와 대공방어 무기 등이 포함된다



워싱턴서 만난 미국-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 언급은 오는 9~11일 워싱턴 D.C.에

이번 23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규모(미측의 사전 발표액 기준)는 535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혼자서 아니며 미국은 결코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다리를 놓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월 구인건수 814만건...전월 대비 반등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5월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 22만1천건 늘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90만 건)도 웃돌았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천200만 건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엔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5월 구인 건수 역시 1년 전과 비교하면 117만1천건 감소했다. 다만, 700만 건대 언저리였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상점의 구인 문구 (로이터 연합뉴스)

▶ 1번 '바이든vs 트럼프' 에서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는 게 승리 확률이 높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 높다는 답변이 전체의 53%로 절반을 넘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역시

36%로 자체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45%로 역대 최고였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또한 34%에 불과했다. 그에게 비호감을 품은 비율은 58%에 달했다.

#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둔화 경로로 복귀...금리인하는 확신 더 필요"

제롬 파월(사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일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선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직전 (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가 연이어 둔화세를 지속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5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과 비교해선 보합에 머물렀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3%로 개선돼 연준이 9월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시장 기대를 키웠다.

##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 척추 한방 클리닉

##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한의원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 휴전선 인근서 자주포 140발 쏘다, 6년만에 실사격 훈련

군, 접적지 포격훈련 정례화 방침  
북한, 초대형 탄두 발사 성공 주장  
사진 공개 안해-합참 "기만 가능성"  
전원회의선 북·러 조약 언급 빠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간부와 대화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군이 2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지역 내 최전방에서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MDL 이남 5km 안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 적거리사격장에서 K9 자주포 90여 발, 강원도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을 발사했다.

2018년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MDL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19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육군은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 포

병 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부대별로 사격일정을 잡아 진행할 것"이라며 "여단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도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는 7년여 만인 지난달 26

일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290여발의 사격훈련을 했다.

이날 군이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수차례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시도했다. 이어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전날 새벽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사일 총국이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은 모두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되며 600여km를 비행한 1발은 청진 앞바다에 정상적으로 떨어졌지만, 120여km를 비행한 1발은 내륙에 떨어져 '실패한' 발사라고 평가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 발표에 대해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도 관련 사실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하고 이례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지

않았다.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2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1일까지 나흘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10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했다. 대부분 민생 문제와 체제 단속에 방점을 뒀다. 지난달 19일 북·러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져서 김 위원장으로서 외교 성과로 포장할 만하지만, 이번엔 부각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전원회의는 올해 경제 분야 중간 점검에 방점이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규율 및 법제도 강화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라며 "군사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헌법 개정안 등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본 게임'을 앞두고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근평·박현주 기자

## 하마스 공격받은 피해자들, 북한·이란·시리아에 5조원대 손배소

"불법 무기 제공한 것 책임져야"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들과 희생자 유가족 100여명이 북한과 이란·시리아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40억 달러(약 5조 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내 유대인 단체인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북한 등 세 나라가 하마스에 불법으로 무기를 제공해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을 지원했다며 이들 국가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DL은 소장에서 북한 등이 하마스를 지원해왔으며 이들이 최소 10억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30억 달

리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너선 그린블랫 ADL 대표는 이날 이스라엘 매체인 예루살렘 포스트에 "이란은 반유대주의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라면서 "시리아, 북한과 함께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큰 반유대주의 공격을 벌인 것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IDF)은 지난해 10

월 7일 하마스 기습공격 직후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발사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마스 대원이 북한산 대전차 무기인 F-7을 소지한 사진이 공개되고,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 협력이 있다고 단정짓지는 않았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질문에 "북한과 하마스 간 모종의 군사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 국경원은 1월 하마스가 사용한 F-7 로켓의 부품이 북한산으로 보인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유진 기자

## 스웨덴, 손주 돌보는 조부모도 3개월 유급 육아휴직 준다

출산율 1.67↓1.45 감소에 파격대책  
480일인 부모 육아휴직 중 일부  
조부모와 45~90일 나눠쓰게 보장  
한국도 조부모 육아휴직 도입 검토

스웨덴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의 부모에게 주어질 유급 육아 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의 육아 휴직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다.

조부모가 육아 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금액과 같다. 다만 조부모가 은퇴한 상태라면 급여가 연금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거나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

스웨덴의 육아 휴직 제도인 '부모 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 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보장한다. 단,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루 180크로나(약 2만

3000원)를 정액으로 받는다. 아울러 스웨덴 부모는 자녀가 8세(공무원은 12세)가 될 때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앞서 1974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스웨덴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비율은 시행 전 0.5%에서 현재 30%까지 올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67명에서 지난해 1.45명으로 줄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가 조부모 육아휴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서유진 기자tv



이란 대선 토론회 보·혁 맞대결... 5일 결선 투표 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란이슬람공화국뉴스방송국(IRIBNEWS)에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인사하는 강경 보수 후보 사이드 잘릴리(왼쪽)와 개혁파 후보 마수드 페제시키안.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뒤 지난달 28일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마수드가 근소한 표차로 잘릴리를 앞서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오는 5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AFP-연합뉴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온라인 예약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Selfotostudios.com



# LOTTE PLAZA market

황성군 청정상품으로 원기회복!



황성군

## 2024년 황성군 롯데플라자 마켓 특/판/행/사

LOTTE PLAZA MARKET SPECIAL SALES EVENT  
OF HOENGSEONG-GUN EXPORT ASSOCIATION

2024년 7월 5일(금) - 11일(목)

(엘리콧시티/락빌/에너데일/센터빌/첼블리/뉴저지 에디슨매장에 한함)



롯데플라자 마켓과 함께 하는 청정 황성군의 풍성하고 건강한 맛을 느껴보세요~!



미사품  
특등급 쌀, 삼광미  
Samsung Rice (Premium Samsung Rice)  
24.99 **18.99** 15LB



DK농부  
황성왕 황태채  
Dried Yellow Pollack  
10.99 **8.99** 100G



홍스링  
건 취나물  
Dried Chives  
5.99 **3.99** 50G



NEW ITEM  
황성산애란  
더덕 고추장/더덕 된장  
Deodeok Red Pepper Paste /  
Deodeok Soy Bean Paste  
13.99 **9.99** 1KG



해부름  
명란젓(오리지날)  
Seasoned Pollock Rice (Original)  
19.99 **14.99** 1LB



해부름  
백명란젓  
Seasoned Pollock Rice (White)  
20.99 **15.99** 1LB



다원농원  
청정 양구 시래기  
Blanched Paddy Leaf  
4.99 **3.99** 1KG



일원  
핀빵(안홍/단호박/흑미)  
Steamed Bread  
(Original / Sweet Pumpkin / Black Rice)  
5.99 **4.49** 500G



모싯잎 방울떡/모싯잎 바람떡  
양금절편/바람떡/방울떡  
Rice Cake (Ramen Leaf Filling) /  
Ramen Leaf Honey / Filling Pie / Puffy / Small Bell  
4.99 **2.99** 12.35 OZ



신부름  
속초시명태회 냉면  
Pollock Cold Noodles  
(Winey / Spicy Sauce)  
10.99 **7.99** 44.65 OZ / 25.39 OZ



미마네  
국물떡볶이  
Corn Starch  
(오리지날/흑미)  
7.49 **5.99** 570 G / 590 G



정우림  
생칼국수/우동짜장면  
Fresh Noodles  
(Kalgajuk / Udon Jjajang)  
6.99 **4.99** 2.2LB



부리민  
옛기름 가루  
Baking Flour  
11.99 **8.99** 1.76 LB



자연의 선배  
감자 전분  
Potato Starch  
8.99 **6.99** 1KG



백운마을  
해맑은 쌀 검정쌀  
Black Rice  
11.99 **9.99** 1KG



백운마을  
해맑은 쌀 찰흑미  
Black Sweet Rice  
10.99 **8.99** 1KG



NEW ITEM  
해맑은  
황성 더덕 티백차  
Deodeok Tea (Tea Bag)  
10.49 **7.99** 30X1G

주최: (사)황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

SUNGWON DISTRIBUTOR LLC

LOTTE market

후원 황성군

# ‘또 트럼프’ 리스크 ... 대선토론 이후 미국채금리 급등

트럼프, 재정지출 더 많이 할 전망  
한국 증시 급락, 원화값도 8.9원 뚫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부상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대선 TV토론과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후 금융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즉각 반응하면서다. 당장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했고,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락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약 0.07%포인트 오른 4.46%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7일 금리가 증가 기준 4.29%였던 점을 고려하면 2거래일 만에 0.17%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는 약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미국 시장금리는 안정화 추세에 있었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견인해 온 고용과 소비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이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2.6%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장금리가 갑자기 오른 것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조기에 불거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압승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교체론을 끌어냈다. 여기에 1일 대법원이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판단을 하급심으로 돌리면서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시장금리가 ‘발작’을 일으킨 것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정 적자 확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선심성 재정 지원 정책을 펼치기가 더 용이하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 공약까지 내세우고 있어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재정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자극하고, 재정 적자 확대는 국채 발행량을 늘려 금리 급등을 부른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Fed

가 예상했던 것보다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규모 관세 부과를 통한 트럼프식 무역 전쟁도 금리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 없는 환경이 된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 없고, 금리 부담으로 인해 내수 회복 등이 지연될 수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 외환 유출과 수입물가 부담도 계속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자 이날 코스피(-0.84%)·코스닥(-2.04%)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도 전 거래일 대비 8.9원 떨어진 1388.2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1390원대를 위협했다.

김남준 기자

## 트럼프 사법부담 덜었다... 미 대법, 면책특권 폭넓게 인정

“가짜 사건들” 상당수는 사라지거나 시들해질 겁니다. 미국에 신의 축복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트럼프는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 “역사적 판결”, “조 바이든은 이제 그의 ‘개들’을 멈춰 세워야

한다” 등 SNS에 관련 글 5건을 연이어 올리며 ‘마녀사냥론’을 주장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한 모든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비공식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없지만,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뤄진 행동은 절대적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하며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추정적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구도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면책특권 인정 취지 판단으로 뜻을 모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 의견을 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중 범부당 국자들과 진행한 여러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했

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를 압박한 혐의와 친트럼프 성향 선거인단 조작 혐의, 트럼프 감성 지지자들의 1·6 의회 난입 사건 관련 행동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라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11월 대선 전에는 본안 사건의 재판 및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방 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고 10월 첫째 주 다시 문을 열기 때문에 그사이 하급심 판결이나

온다 해도 트럼프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은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

트럼프로서는 지난달 27일 TV 토론 완승에 이어 사법리스크까지 상당 부분 털어내며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단 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큰 승리를 선사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며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질 바이든 “90분 토론으로 바이든 4년 재단 안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일(현지시간) 패션 잡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TV 대선 토론 이후 제기되는 후보 사퇴론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대신해 ‘정면 돌파’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 언급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선 레이스에 복귀했다.

대통령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는 질 바이든 여사였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 공개된 패션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90분의 토론이 바이든의 4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시간을 재단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와 유권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바이든 여사는 기적을 믿고 있다”고 농소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바이든 여사가 패션잡지 보그 표지 사진 촬영에 착용한 옷

을 지적하며 “거취와 관련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이 주목받는 시점에 5000달러짜리 팔포 로렌 텍시도 드레스를 입고 ‘우리는 미래를 결정할 것’이란 문구와 함께 등장했다”고 비꼬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프롬프트가 마련된 단상으로 나와 “(1·6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준비된 원고를 다 읽은 뒤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



보그 8월호 표지에 등장한 질 바이든 (사진 보그, EPA=연합뉴스)

로 한 채 브리핑장을 빠져나갔다. 바이든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고객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회의를 열어 ‘큰손’들을 설득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칼 번스타인 전 WP 기자는 이날 CNN 시사 프로그램 ‘360도’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들이 지난 TV 토론 때와 비슷한 상황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15~20차례 목격했다”며 “소식통들은 바이든이 TV 토론 때 보여준 것과 같은 모습이 일회성이 아니라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강태하 특파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콘도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b>\$875,000</b>	<b>\$310,000</b>	<b>\$880,000</b>	<b>\$1,200,000</b>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방1, 화1, 차고1, 2007년산 엘리베이터, Large Fitness, 세탁기&드라이어 In Unit, 24/7 Concierge SVC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방4, 화3.5, 차고2, 정원이 아름다운 코너집, 리모델링 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증언여자 환영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 호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드레일이 부서진 모습(왼쪽 사진). 2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사고 차량이 정밀 조사를 위해 옮겨지고 있다.

[인근 상가 CCTV 캡처, 뉴스1]

지난 1일 발생한

# 시속 100km로 인도 덮쳐, 250m 돌진 후에야 멈춰

**시청역 차량돌진 미스터리**  
운전자 “급발진, 브레이크 안 들어”  
경찰 “가속페달 밟은 것으로 추정”  
“사고 운전자는 베테랑 버스기사”

15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6명)가 발생한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직후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별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및 중앙일보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쯤 차씨가 운전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와 세종대로 방향 4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했다. 시속 100km 가

까이 가속한 차량은 인도를 덮쳤다. 이 과정에서 인도와 차도를 경계 짓는 가드레일이 뿌리째 뽑혔고, 부딪힌 오토바이는 산산조각났다. 인도를 덮친 뒤에도 사고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서울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 2대와 부딪혔다. 이후 부메랑 모양으로 방향을 틀며 세종대로를 가로질렀다.

사고 차량은 지하철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에 멈춰 섰다. 인도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9명이 사고 차량에 치여 숨졌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 차씨도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을 보면 사고 직전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러레이터)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피의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말하기 힘들어한다. 의사 소견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조사도 고려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장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 검사도 음성이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가 비교적 가볍게 다친 부인 김모(66)씨도 조사했다. 차씨 측에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만큼,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급발진은 운전자 의도와 상관없이 차량 결함으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사고 차량의 EDR과 블랙박스 영상 등도 검출할 방침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는 차씨는 “차량이 이상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차씨의 ‘급발진 사고’ 주장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차씨와 같은 운수회사에 다니는 최모씨는 이날 중앙일보에 “차씨는 오랫동안 버스를 운전한 베테랑으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한 노선만 운행했다”며 “사고 전날까지 근무했고, 사고 당일은 쉬는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 운수회사 다른 관계자는 “차씨는 1년4개월째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형버스를 운전하고 여기서 재직하는 동안 사고를 낸 적은 한번도 없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데다 발생 시간이 귀가 시간에 겹쳐 인명피해 규모가 컸다. 특히 사고 차량이 피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인도를 덮쳤다는 게 목격자들 전언이다. 실제로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은 순식간에 인도를 지나가고, 일방통행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도 칠 뻔했다. 황모(67)씨는 “(사고 현

장) 인근을 킥보드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마터면 우리도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이 전한 사고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다. 사상자들이 차에 치여 쓰러져 동행자들은 “아니야 아닐 거야. OO형 아니야” “빨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며 오열했다고 한다. 사고 현장 인근 식당 종업원 김모(43)씨는 “계속 부딪치는 소리가 연속 폭발음처럼 들렸고 차량 클랙스 소리도 컸다”며 “밖에 나와 보니 소방대원들이 사상자를 심폐 소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자 빈소는 서울대병원(7명)과 신촌세브란스병원(1명), 국립중앙의료원(1명)에 마련됐다.

특히 승진·인사 등으로 직장 회식에 나섰다다가 사고를 당한 사연 등이 전해지면 서안타개움을 더했다. 부상자 중 4명은 서울대병원(2명)과 적십자병원(2명)에 입원했고, 경상자 2명은 귀가했다가 부상자로 나중에 추가됐다.

이보람·김서원·박종서·이아미 기자

## “자주 가던 곳에서 사고... 방어보행 해야 하나” 시민 불안

차량 돌진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일대는 평소 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심 한복판이다.

고층 오피스 빌딩과 북창동 먹자골목과 가까워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사고 소식을 접

한 시민들의 충격도 더 컸다.

2일 인근의 한 대기실에 다니는 A씨는 “평소 자주 가던 식당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다.”

방어운전이 아니라 방어보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량이 덮친 인

도에는 순댓국집과 삼계탕집, 편의점 등이 자리했다. 이곳을 매일 다니는 시민들은 “남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20대 후반 직장인 최모씨는 “자주 회식했던 곳 주변에서 끔찍한 사고가

나서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직장인일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했다. 오모(30)씨는 “남편도 늘 그 길을 통해 퇴근한다”며 “사고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

화 연결음이 들리는 1초 1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사고 이튿날인 2일 현장엔 파손된 가드레일 대신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다. 국화꽃을 들고 현장을 찾은 60대 김모씨는 “좋은 세상이 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다니 너무 허무하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영근·석경민·손성배 기자

## “모텔 데려다 줄게” 전직 교육장, 3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구속

30대 여성 지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교육청 전직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법원

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육장 A씨(60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B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한영혜 기자

#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

85세

**\$406,309**

25년후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 비용이 입금)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도매업 / 쇼룸 / 리테일

VA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1.35M

3,600 SF 창고 / 리테일 / Warehouse / Industrial Flex,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495에서 1마일, Drive-in, 천장 18 FT, I-5 Zoning \*추천업종: 도매업, 창고, 쇼룸, 리테일 SBA융자가능

사평센터 | 참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사평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력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셸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서울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일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시청역 참사 차량 이동 경로



- 1 1일 오후 9시27분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차모씨, 웨스틴 조선호텔 나옴
- 2 4차로 일방통행 도로 질주, 원편 인도 쪽으로 돌진
- 3 안전펜스 뚫고 보행자 추돌·사상
- 4 BMW·쏘나타 차량 2대 등 추돌
- 5 교차로 가로질러 멈춰섬

자료: 서울중부소방서

# 승진 회식, 야근 전 끼니... 직장인 '애환의 거리' 덮친 비극

지난 1일 밤 서울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로 사망한 9명 중 4명은 같은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던 동료였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자 이모(54)·이모(52)·이모(52)·박모(42)씨는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은행 본점에서 퇴근한 뒤 귀갓길에 함께 변을 당했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다. 함께 사내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며,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엔 해당 은행의 승진·전보 인사 발령이 낫던 날이었고, 박씨는 승진 대상자였다. 이 때문에 인사 이동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3명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1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다.

### "아침에 조심하라 한 게 마지막 인사"

오전 1시쯤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동료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시간을 보낸 동료들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 여성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안 돼"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동료들은 장례식장에서 밤새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서울시청 김모 사무관의 빈소. [뉴스1]

**동료 은행 직원 넷 참변**  
사고 당일 인사발령 나 축하 회식 갑작스러운 비보에 직원들 큰 충격  
20대 딸 "아빠 아니라고 해" 오열

도록 고인과 유가족 곁을 지켰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이모(54)씨의 어머니는 "아침에 (아들이) '잘 다녀올게'라고 해서 '그래 잘 갔다와, 조심해라'라고 한 게 마지막 모습"이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낮에는 전화로 머리가 아프다면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술 조금만 먹겠다고 했는데 장장한 아들을 왜 데려가나"며 이씨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렀다. 부장급인 이씨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팀장을 맡게 됐지만, 발령 당일 참변을 당

모두 세무직 출신이거나 현재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다. 이들은 시청 인근에서 식사 후 야근을 하러 청사로 돌아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2명은 숨졌고 1명은 다쳤다.

### "일밖에 모르던 막내, 집안의 자랑"

사망자 김모(52) 사무관은 1일 새벽 6~7시쯤 출근했다. 이날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여는 날이었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규탄대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일찍 출근했다고 한다. 청사 방호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출근해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까지 서기 위해 복귀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김 사무관이 이끄는 부서는 이날 '이달의 우수 팀'으로 뽑혔다. 시청 행정국이 월 1회 가장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주는 상이다. 오후에는 서울시가 선정하는 동행매력협업상 수상자로도 결정됐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정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성과를 제고한 부서에 주어지는 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에 큰 상을 2개나 받을 정도로 '운수 좋은 날'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변을 당했다"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경북 안동에서 7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년 전 사무관으로 승진한 막내는 7남매의 자라이었다. 그의 큰형 김윤병(67)씨는 동생을 일밖에 모르는 공무원으로 기억했다. 김씨는 "며칠 전 어머니 제사 때문에 연락하니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고 말했다. 그는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죽으려고 10시도 안 돼 나와 보다"며 비통해했다.

가족들은 그를 '막내딸과 캠핑·여행을 즐기는 딸 바보'로 기억했다. 사망 전 날에도 둘째 딸과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1일 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은 둘째 딸은 오열하다 실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함께 숨진 윤모(31) 주임은 2020년 7급 지방직 공개채용을 거쳐 서울시에 입직했다. 일을 시작한 지 채 5년이 안 됐지만, 업무처리만큼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상사는 "예산과에서 굉장히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세무과에 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연말 6급 승진이 유력했지만, 이날 참변을 당했다. 1일 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윤 주임의 어머니는 "회사 출근하는 게 좋아 죽겠다던 아이였다"며 오열했다.

신혜연·이찬규·이영근·문화철 기자

## 국립한국해양대, 해양클러스터 기관과 '해양그랜드투어' 운영 추진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가 '글로벌 해양 허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간의 긴밀한 협력체

제를 갖춘다.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양클러스터 「해양그랜드투어」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해양그랜드투어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기획비 공모사업의 하나

로,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기관이 연합해 해양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2024년에는 한국해양대 RIS 스마트항만물류사업단의 예산 지원으로 부산지역 중·고등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역사·문화 ▲물류·수산·해양 ▲해양환경·안전 ▲해양과학 4개의 경로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클러스터 기관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양그랜드투어 등 지역 해양문화·교육 자원을 연계한 해양클러스터 거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해양교육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 해양교육 브랜드 육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해양그랜드투어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환경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함께한다. 안창기 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 7월 HOT 리스팅

##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민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탐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더더 많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 윤상현 “계파싸움에 보수 붕괴… 난 대통령에 수시로 직언”

총선 때 ‘위기관’ 외쳤지만 당 침묵 창조적 파괴 수준으로 당 혁신할 것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윤상현 의원이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 재건의 출발점인 전당대회가 대권 놀이터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총선 싸움에서 진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후보를 겨냥해선 “당권 경쟁이 아닌 대권 게임을 하고 있다”며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돼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하면 당은 걷잡을 수 없게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과 문자·통화, 신뢰관계 유지”

인천 동-미추홀에서 5선 고지를 밟은 윤 후보는 지역구 관리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린 당 대표 비전 발표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서 우산을 쓰고 기다리던

지역구 주민들이 다가와 “윤상현 힘내라”고 외쳤다. 윤 후보는 “다른 후보 팬덤보다 규모는 작아도 유대 관계는 더 끈끈하다”고 했다. 인터뷰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행됐다.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당시 홀로 위기를 외쳤지만, 당에선 비겁한 침묵이 이어졌다.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지면 차기 대선이나 4년 뒤 총선도 힘들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나섰다.”

“국회 의석 170석의 거야 민주당을 어떻게 상대할 건가.”

“무도한 행태를 보이는 야당이지만, 이인삼각으로 묶인 국정 파트너이기도 하다. 여당 대표가 되면 야당과 싸울 땐 맹렬하게 싸워도, 한편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등 국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다른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일 서울 강서구 ASSA 빌딩에서 열린 비전발표회를 마친 뒤 차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당원권을 정지당하고 두 번이나 공천 탈락해 무소속 출마하면서 중앙 정치 무대와 오랫동안 멀어졌다.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3주를 나를 제대로 알릴 기회로 삼겠다.”

윤 후보는 과거 친박계 핵심으로 권부(權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 후보를 비판했다. “절운(絶云, 윤 대통령과의 절연, 배신)이라는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 단절을 거론했다.”

“총선 직전 의·정 갈등이 불붙었는데, 선거 때이니만큼 대통령실이 아닌 여당이 전면에서 갈등을 진화해야 했다. 그런데 당은 아무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하더라. ‘윤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인) 한 후보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단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나.”

“한 후보가 내건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은 자신과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차별화하는 카드다. 그걸 보면서 ‘이분은 당권 경쟁이 아니라 대권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검법을 띄우고 싶었다면, 먼저 당원과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후폭풍보다

는 대권 그림을 더 중시한 것 아닌가.”

“윤 후보 자신은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두텁다고 보나.”

“수시로 문자를 하고, 통화도 한다.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는 쓴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이준석 대표 시절 ‘이준석 내치면 안 된다’는 직언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

### “후보 연대? 당원에 대한 예의 아니다”

윤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를 향해서는 “두 사람이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나와 나경원 후보 중에서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지난달 30일)고 하면서다.

“다른 후보와 연대할 수 있나.”

“연대나 단일화를 거론하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대결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나왔지, 특정 후보와 연대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손국희 기자

# ‘비싼 액정 써라’ 삼성 설득한 그녀 “리더의 덕목? 결국 사람이 열쇠”

### 이행희 한국코닝 전 대표 인터뷰

평사원서 출발, 사장만 20년 역임  
은퇴 후 기업 컨설팅 등 인생 2막  
“부하들 야심 가질 수 있게 유도해야  
믿고 맡기면 나와 함께 성장하게 돼”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만 20년. 이행희(60) 한국코닝 전 대표 이야기다. 스마트폰 액정부터 자동차 유리, 반도체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미국 기업 코닝의 한국 대표로 일하며 강산이 두 번 바뀌는 걸 본 그는 올봄 은퇴를 선언했다. 1988년 입사해 35년을 근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아시아에서 주목할 여성 기업인”으로도 선정했지만, 과감히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인생 2막을 위해서다.

명함은 외려 4개로 늘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외이사, 모교인 숙명여대 재단 이사, 청각장애인 지원 사회복지단체인 사랑의 달팽이의 부회장이자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컨설팅 기업까지 1인 4역이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사학과를 졸업한 뒤 스스로 기업인의 길을 개척한 삶의 지혜가 궁금해 지난달 28일 만남을 청했다.  
-기업 대표만 20년을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갔다. 20년을 대표를 하면서 느낀 건 모든 건 팀워크라는 것이다. 그 팀워크를 위해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세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부하 직원들이 야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하고 기회를 주는 것. 누군가 그만두면 그 자리에 비슷한 스펙의 사람을 새로 뽑지 않았다. 그 아래 있던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내 원칙이었다. 쉽지 않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적응할 때까지 나의 일도 늘어나니까(웃음). 하지만 믿고 맡기면 사람은 커나가고 나도 함께 성장한다.”

“어떻게 했다.”

“결국 사람이 열쇠다. 누가 의사 결정자인지를 공리했고, 상품 개발 담당 부서로 갔다. 앞으로 터치로 간다고 설득했고, 기업 각 부서를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홍보 부서까지 다 불러서 신소재 비교 실험 결과를 실증했다. 그 자리에서 한 임원이 ‘단가가 높으면 그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선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결단을 내렸다.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보람찬 순간이었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렸나.”

“간절하면 통한다. 꿈에서도 생각하면 갑자기 떠오른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CEO의 임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지’라는 마음이 바로 든다.”

“치환 안 되는 스트레스도 있지 않나.”

“있다. 그럴 땐 그냥, 잔다(웃음). 코닝에서 받았던 리더 교육에선 ‘넷 잇고

거부했다. 큰일 났다 싶었다. 판매 실적이 걱정돼서 아니다. 애플은 이미 그 유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이 단가가 낮은 소재를 쓰면 품질에서 초격차가 벌어진다.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다.”

“어떻게 했다.”

“결국 사람이 열쇠다. 누가 의사 결정자인지를 공리했고, 상품 개발 담당 부서로 갔다. 앞으로 터치로 간다고 설득했고, 기업 각 부서를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홍보 부서까지 다 불러서 신소재 비교 실험 결과를 실증했다. 그 자리에서 한 임원이 ‘단가가 높으면 그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선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결단을 내렸다.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보람찬 순간이었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렸나.”

“간절하면 통한다. 꿈에서도 생각하면 갑자기 떠오른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CEO의 임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지’라는 마음이 바로 든다.”

“치환 안 되는 스트레스도 있지 않나.”

“있다. 그럴 땐 그냥, 잔다(웃음). 코닝에서 받았던 리더 교육에선 ‘넷 잇고

(Let it go, 그냥 신경 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상사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해주었다.”

“힘들 때 기댄 존재는.”

“인문학이다. CEO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테마를 잡고 전문가를 모셔서 고전 공부를 한 게 8년 됐다. 사람 사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성으로 받은 차별은.”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여성을 인재로 키운다는 생각 자체가 없던 시절이다. 매 순간 나를 증명해야 했다. 80년대엔 아예 상대를 안 해줬다. 기다리게 하는 건 기본, 회의 중 사라져서 찾아보면 남자들이기 때문에 피우며 얘기하는 일도 많았다.”

“그런 일도 잊을 만큼 일이 즐거웠다.”

“코닝은 한국엔 없는 기업이다. 기술을 170년 넘게 축적해 온 기업이고, 그 선진 기술을 가져다 한국의 고객사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다리를 놓는다는 보람과 즐거움이 엄청났다. 매년 시무식에서 코닝의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미션을 적은 문구를 임직원이 함께 읽는 루틴도 만들었다. 단

순히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로 한국이 발전한다는 게 뿌듯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계산기를 너무 두드리지 말자.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따지며 뭔가를 하지 말고, 멀리 보자. 인생은 장기전이다. 지금 당장 플러스가 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는 일이면 하라. 신뢰가 쌓여 더 크게, 더 멀리 가는 게 인생이더라.”

전수진 기자



이행희

<b>DC 창고</b> <b>SOLD</b> \$ 2.5M DC, NoMa Metro 상권	<b>DC 사坪센터</b> <b>SOLD</b> \$ 2.4M DC, Capital Hill 지역	<b>DC 단독건물</b> <b>SOLD</b> \$ 1.5M Benning Rd., 개발지역	<b>DC Mixed-Use</b> <b>SOLD</b> \$ 1.6M Capital Hill 지역	<b>DC 사坪센터</b> <b>SOLD</b> \$ 4.5M Popeyes, 연인점 \$32만	<b>DC NW 아파트</b> <b>SOLD</b> \$ 1.5M Metro 상권, 5 유닛
<b>DC Georgetown</b> <b>SOLD</b> \$ 930K Retail / Residential	<b>DC H Street</b> <b>LEASED</b> 단독건물 Union Station	<b>DC Warehouse</b> <b>SOLD</b> \$ 6.8M 67,000sf, Industrial	<b>DC Warehouse</b> <b>SOLD</b> \$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b>DC Warehouse</b> <b>SOLD</b> \$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b>for SALE</b> \$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NW Metro 상권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건물 테넌트와 TOPA 거래 전문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Tel: 703-598-3316**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우리말 바꾸기

‘아니요’? ‘아니오’?

한 문장의 끝을 맺는 자리에는 종결어미 ‘-오’가 와야 한다. ‘아니오’는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설명·의문·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오’가 결합한 말이다. “내 알바 아니오”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 아니오”와 같이 한 문장의 서술어로만 사용한다. 같은 이유에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만 하십시오”로 쓸 수 없다. ‘도와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로 고쳐야 된다.

앞말과 뒷말을 이어 줄 때는 ‘아니오’가 아닌 ‘아니요’가 온다. “그들은 부부가 아니요, 동지랍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등처럼 사용한다. ‘아니다’의 어간에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오’가 붙은 형태다. 문장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므로 ‘아니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질문에 부정하는 대답을 할 때도 ‘아니오’와 ‘아니요’의 표기를 많이 혼동한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와 같이 쓸 수 없다. ‘예, 아니요’라고 해야 올바르게 쓴다. ‘예’ 또는 ‘네’와 상대되는 말은 ‘아니오’다. 이때의 ‘오’는 연결어미가 아니다. 감탄사 ‘아니’와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 ‘오’가 결합된 구조다. 감탄사에 종결어미 ‘-오’는 붙을 수 없다. 답하는 말로 ‘아니오’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게 여겨진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태세 전환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북괴 남침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거의 다 북괴 수중에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6·25전쟁 한창이던 1953년 7월 27일 UN군과 공산군 측이 휴전협정을 맺고, 10월 1일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우·이·하 전쟁에 출구 전략은 없고,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습함으로써 전선은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불안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있다.

대한민국도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정세와 북한이 조장하는 군사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2022)’으로 격상하였고, 워싱턴 선언2023,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등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대선에서 재대 결한 사례는 1956년 에들레이 E. 스티븐슨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재도전하였으나, 고배를 마셨다. 조 J.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체제, 대북 억제력 강화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추진에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는데 진력하기에 작금의 군사적 위기가 해소될 만한 조짐을 찾기는 어려운 정국이다.

2023년의 워싱턴·캠브 데이비드 선언,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한 정보 공유체제 가동, 공동계획의 실행, 협력적 메커니즘 강화,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등의 노력이 다행스럽다. 반면, 미국 우선과 ‘확증편향 및 거래 주의’ 성향의 도널드 W. 트럼프가 승리 할 경우, NATO 회원국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EU에 대한 헌신 노력도 줄이

겠다는 발언 등이 혼돈의 카오스로 작동하며 각자 도생 양상으로 변질 수 있다.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북·미 회담을 진행했으나,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은 공염불에 그쳤다. 여기에 방위비 부담 요구는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 대북 협상 추진엔 말을 아끼며, 한반도 정책은 공표하지 않는다.

연합훈련 축소(중단), 주한미군 철수를 한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독특하고 어메이징한 성향인 트럼프를 읽지 못하는 자체가 위기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의 권력은 분점된 상태이고, 대선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러할 때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북한 김정은과 전쟁지도부가 오판하는 경우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선대(先代)의 두려움과 김정은의 독존적(獨尊的) 성향상 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김정은의 전략적 오판(선제침공)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대남(對南) 공격을 본토에 대한 공격처럼 인식할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선제침공의 유혹을 절제시킬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지혜’가 절실하다.

한국의 처지에서는 ‘자체 핵무장’이나, 아니

‘맞춤형 억제전략’이 효과적이냐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 한다고 하여 똑같은 억제력이 아니어서다. 현실에 대입해 보면, 미국은 우주 자산과 감시·경보시스템, 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 핵 타격 플랫폼, 군수 장비 등의 전략자산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전쟁지도부 및 군사정보의 신속한 수집, 핵·미사일 요격·무력화·방호, 정밀타격 및 보복할 능력이 충분한 ‘거부 중심의 억제력(선제 대응)’이다.

한국의 핵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보복 중심의 억제력(사후 대응)’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도널드 W.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 미국과 북한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되었고, 군사적 관계는 소원하였다.

다시 말해 미 본토의 주류계층이 아무리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일지라도 ‘거래주의’에 능한 그의 특성상 김정은과 전격적으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퇴보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주변국과의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 정도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봐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위기와 불확실성이 날로 확산하는 어려운 시기다. 한미 간 위협인식과 정치적 목표는 최대한 같아야 하며, 주변국과의 협력체제는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더욱 공고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독자마당

신 영웅전

신라 문무왕 9년(서기 669년)에 당나라 사신이 왔다. 이때는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뒤라 당나라 사신의 태도는 방자했다. 당나라 사신은 신라를 떠나면서 조공품 가운데 신라의 활을 보고 욕심을 냈다. 그 활이 1000보(步)를 날아가는 것을 보더니 아예 그 활을 만든 장인(匠人)을 인신 조공으로 요구했다. 그 장인이 아찬(阿飡) 벼슬의 구진천(仇珍川)이었다. 문무왕은 당나라 사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당나라에 도착한 구진천은 황제 당 태종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줬다. 황제는 곧 재료를 주면서 구진천이 활을 만들도록 했다. 그런데 그가 만

든 활은 3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당 태종이 이유를 묻자 구진천은 재료가 나쁜 기 때문이라 대답했다. 이에 당 태종은 사람에게 파견해 활 재료를 구해 오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가져온 재료로 만든 활도 6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당 태종이 다시 그 이유를 묻자 구진천은 이번에는 재료를 배로 운반해 오는 동안 습기가 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제야 영악한 당 태종은 구진천이 활을 만드는 비법을 숨기고 있음을 간파했다. 결국 당 태종이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나 구진천은 활을 만드는 비법을 끝내 전하지 않고 죽었다. 그 화살에 자기 동포가 죽을 것을 걱정했

기 때문이었다. 국가의 기밀이란 이토록 중요한 것이며,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또한 이토록 뜨거운 것이다. 지난날에는 하급 기술 관리에게도 고국을 사랑하는 충정이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을 발명해 명성을 얻으면 고국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능력을 펼 길이 없어 떠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으나 그들의 처사가 고국에 누가 되는 경우라면 지탄할 수밖에 없다. 고국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고국을 버릴 수 없다. 어머니를 버릴 수 없듯이.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 정치적 사면초가 기시다 총리, 퇴진할까 부활할까

최근 일본 정치 상황을 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기시다 정권의 정치적 운명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기시다 총리는 위기를 돌파하고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만약 정치적 재기가 어렵다면, 일본을 이끌 차기 지도자로 누가 등장할 것인가. 국제정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더 긴요해진 이웃 나라 한국도 예의주시해야 할 이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월 21일 기자회견 도중에 검연찍은 표정을 짓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적으로 사면초가 상태다. [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를 둘러싼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은 첨예한 양극화이다. 자민당은 정치자금 관련 스캔들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도쿄지검 조사에서 관련 정치인들이 처벌됐다. ‘정치자금 규정법’을 개정해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은 보궐선거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나가사키·시마네·도쿄에서 치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 등에서 패배하면서 집권 자민당의 입지가 축소됐다.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내각지지율이 떨어지고, 현직 총리는 다가오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 아니면 출마하더라도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 엔저 장기화로 경제 사정도 어려워

체감 경제 사정도 거둬들이는 엔저 현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자민당은 ‘경제 재생-당신이 실감하도록’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임했지만, 일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 일본을 추월하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일본 측 전문가가 한국경제를 긍정적

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왜 기시다 정권은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을까.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위기의 시대에 안도감을 주면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있지만, 큰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동적인 리더십 때문에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하면서 낮은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시다 정권은 정치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먼저 후견인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자민당 부총재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나름대로 정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소 부총재와 정치 운영을 놓고 의견대립이 여전히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에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지율 하락에다 자민당 파벌 해체 등으로 총재 재선의 길은 험난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의회 해산권

### 지지율 하락, 연이은 선거 패배 기시다, 9월 자민당 총재 나설까 의회 해산 카드 행사할지도 변수 이시바·고이즈미·모테기 하마평

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23일은 국회 회기말이었다. 이제부터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5년 10월 30일 사이가 의회를 해산할 기회다. 지금부터 15개월 안에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준비한다면 선거의 간판 얼굴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같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총리로는 이기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 자민당, 정권 내준 2009년보다 상황 나빠

앞으로 기시다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 거둬들이는 자민당의 선거 패배와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보면 비관적이다. 향후 기시다의 정치적 운명은 최악의 경우 2009년 8월 당시 아소 총리에 의한 의회 해산과 선거 참패, 민

주당 정권 수립으로 이어진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지금 상황은 2009년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이라는 기사회생 전략은 성공할까. 기시다의 후견자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22년 7월 총격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자민당 파벌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해산한 충격의 여파가 크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향한 구심력을 회복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자민당 파벌 해체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재 선거인데 각 파벌의 역학관계가 붕괴한 상태다. 파벌 리더가 정치자금이라는 실탄을 잃으면서 파벌 해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 아소 부총재와 스가 전 총리 역할 주목

오는 7월 도쿄도(東京都) 지사 선거가 치러진다. 자민당을 탈당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가 3선을 노리고 있다. 도쿄 지사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일본 정국을 움직일 수 있는 선거이자 각 정당이 지원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의회 해산 전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면서 수면 아래에서 여야 정당들이 지원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한판승부다. 문제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저하와 정치자금 문제로 자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치러지게 되면 자민당으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기시다가 퇴진할 경우 ‘포스트 기시다’는 누구일까. 다가오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 두 대형 선거의 간판 얼굴을 뽑는 측면이 강하다. 포스트 기

시다를 노리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파벌을 유지한 아소 부총재와 무파벌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전 총리는 기시다 총리의 정치 책임론을 주장하며 자민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경제 재생’을 주장한다. 이런 과제를 실천할 인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의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보면 기존 파벌과는 달리 향후 자민당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의 손을 내밀고 기시다 총리가 화답하면서 신뢰 회복과 정치적 안정으로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동북아를 둘러싼 위협적인 안보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해왔고 상당한 협력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 끌어내리기가 진행되면서 총리의 리더십이 약화하고, 자민당의 내부 결속력이 이완되면서 자민당의 인기는 최악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일본 국내 정치 상황 변화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따라서 윤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을 고민을 해야 한다. 셔를 외교로 다진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킬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다.

이중국의 21세기외교전략연구원 동아시아센터 소장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물 풍선, 오물 발상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TV토론은 평양에서도 유심히 봤을 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약한 성량과 불안한 눈빛을 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진행할 3차 정상회담 장소를 구상했을까. 악열전 평양순안공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새벽 2시 45분까지 기다리며 속 끓이던 때를 상기하며, 그래도 트럼프 같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했을까.

한편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 풍선으로 바꿨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차례 오물 풍선을 38선 이남으로 날려 보냈다. 김 부부장은 첫 날포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에 본인 명의 성명을 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 기생충 인분과 쓰레기로 북한 주민의 고된 일상이 주목받자 이젠 애꿎은 종잇조각을 주로 보내며 표현의 자유를 논하더니, 왠지 딱한 마음마저 든다.



왼쪽부터 서울 잠실대교 인근, 인천 앞바다, 파주 금촌동, 인천 인후리 밭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 [연합뉴스]

기자뿐만 아니다. 지난주 주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유럽인 기자는 “그런 도발을 해야 하는 북한 처지가 딱해 보인다”고 했고, 동남아인 교수는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혀를 찼다.

딱한 건 오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자는 발상 자체가 오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북한 지도부다. 핵심 인물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애처롭다. 오물 풍선을 보내겠다는 의기양양한 발상과 행동이 결국 한반도의 갑갑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더 답답해진다. 그렇다고 약 2678만원(서울시와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라는 재산 피해가 무과될 순 없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마주친 김여정 부부장을 기억한다. 특급 호텔 마리나샌즈베에서 걸어나오던 그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 차림에 한껏 여

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런 그가 6년 후 구상한 논리가 고작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니, 실망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직후 그의 측근부터 뉴욕타임스(NYT) 논설실까지 아름다운 퇴장을 권하는 것을 보며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 남매는 역시 민주주의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사실 그 반대다. 최고 권력자에게 용퇴를 권할 수 있는 자유, 그런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가 빛나는 이유다. 오물 풍선으로 북한이 더럽히는 건 스스로의 얼굴임을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은 깨달아야 한다. 오물 풍선은 발상 자체가 오물이다. 전수진 투에이·피플티장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시 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전력이 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이 검사 4명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아리송하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방의 주장이고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거의 없다.

검사들이 탄핵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짧아도 수개월, 길면 1년이 넘을지 모른다. 이처럼 심각한 행정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은 신중해야 하며, 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자신들과 악연이 있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면 더더욱 오해를 살 빌미를 만들면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쪽 얘기만을 근거로 탄핵을 벌이는 건 일종의

정치 보복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탄핵 소식에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 건 일리가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탄핵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사위엔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도 있다. 피고인 측이 검사를 조사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판이다. 어제 결국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유아무야되긴 했지만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것도 법리적으로 무리수에 가깝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

지만, 방통위법엔 2인 체제가 위법이란 규정은 없다. 민주당의 부실 탄핵은 이미 전례가 있다. 2023년 2월 이태원 헬리콥터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그해 7월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됐다. 지난해 9월엔 유우성씨 보복 기소를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것도 지난 5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로 기각됐다. 그런데도 또 검사를 4명이나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4월 총선의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걸핏하면 탄핵으로 행정부를 위협하는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다.

검사 4명 탄핵에 “이재명 처벌 모면용” 비판 일어 피고인 측이 검사 조사하는 황당무계 벌어질 판

퇴근 시간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충격적 교통사고

그제 저녁 지하철 서울시정역 부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일으킨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퇴근 후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적이다. 이 사고로 승진 축하 회식을 마치고 나온 은행원들, 이틀 새 상을 두 개나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일행, 병원 주차관리 업체 직원 등 직장 동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아울러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한둘이 아니다.

사고 차량은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오며 급가속하기 시작해 4차로 도로를 넘었고, 음식점들이 몰려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고속으로 역주행하며 사람·오토바이·차량 등과 잇따라 부딪혔다. 이어 9차로 세종대로를 가로질러 덕수궁 쪽에 멈춰섰다. 질주한 거리가 무려 200m가 넘는다.

사고 운전자는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소속 촉탁직 기사로 확인됐다. 올해 68세로 1974년 버스 면허를 딴 뒤 시내버스와 트레일러를 몬 4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다. 경력에 비춰 믿기 힘든 사고가 난 만큼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등이 의심됐지만 사고 직후 간이검사에선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운전자는 “출발할 때부터 차가 이상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CCTV에 찍힌 부드럽게 멈추는 장면은 전형적인 급발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건물이나 차량 충돌 후 더 나아갈 수 없게 되거나 전복돼 멈추는 경우가 급발진의 대부분이라는 게 차량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에 충돌 과정에 차량 전자장치가 꺼졌다 다시 켜지며 리셋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 모습만으론 단정짓기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경찰과 국과수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하겠다.

역주행하는 동안 회피 동작을 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보통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땐 핸들을 쥐기 마련인데,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에선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운전자가 현재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소명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리 운전 미숙으로 단정짓고 고령자 운전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러 규정상 65세부터 노인에 포함되지만, 요즘 68세를 일률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고령자 이동권에 대한 고려 없이 연령 기준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지만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번 참사를 계기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모든 정치인의 삶은 실패로 끝난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JP(김종필)는 일흔여덟의 나이에 금배지를 때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파 속에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도. 곧 정계 은퇴를 하며 “일찌감치 떠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세워놓고 떠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만 빼곤 다 이론 그였지만 중국엔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배지를 욕심냈다. 당시 심리를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좀 더 장엄하게 정치와 이별하고 싶었다. (중략) 온 지구를 하루 종일 답했던 태양이 서산에 이끌거리며 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다. 내일 또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약하며 서해의 붉은 낙조로 빨려 들어가는 햇덩어리가 되길 나는 욕망했다.”(『김종필 증언록』)

그저 ‘한 번 더’가 때론 치명적일 수 있음을 JP는 보여줬다. 멈출 때를 알지 못한 그의 비애다. JP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고전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이브 파월은 이런 관찰기를 남겼다. “모든 정치인의 삶은 실패로 끝난다(All political lives end in failure). 행복한 시점의 어디에선가 중단되지 않는 한. 그것이 정치와 인간사의 본질이다.”

대서양 양안에서의 주요 선거를 보며 다시 이 말이 떠올랐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부터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은 것만 해도 노정객으로서 대단한 성취였다.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더 하겠다는 건 과욕이었다. 그와 가까운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조차 첫 TV토론을 보고 울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멀쩡하지 않았다. 한국계 로버트 허 특검이 바이든을 “동정심 많고 선의를 지닌 기억력 나쁜 노인”이라고 표현했던데, 지금 와서 보니 허 특검이 동정심 많고 선의를 지닌 사람이었다.

부인인 질 바이든이 토론회 직후 모임에서 남편을 맞으며 “조, 너무 잘했어요! 당신은 모든 질문에 답했고, 모든 팩트를 알고 있었어요!”라고 외친 건 괴이했다. 원래 상당수 대통령 부부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대통령직을 함께 한다고 느끼긴 한다. 질 바이든은 더나

아가 대중 앞에서 남편을 자신의 학생 다루듯 했다. 과연 바이든 부부의 역할 분점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다. 정상은 아니다.

최근 응색해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위기를 자초했다. 3년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총선을, 유럽의회 선거에서 졌다고 치르게 되면서다. 아마도 프랑스 특유의 ‘공화국 전선’, 즉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좌·우파 정당과 지지자들이 함께해 온 전통에 기대고 싶었을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 마크롱’은 공화국 전선의 약화를 상징한다. 기성 정당(공화당·사회당)이 움츠러든 사이에 중도의 공간을 넓히며 대통령에 당선됐고, 민심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생겨난 권력의 진공을 극우·극좌 성향 정당들이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파에선 국민연합(RN), 좌파에선

과욕으로 드러난 바이든의 도전 극단 정당에 기회 된 마크롱의 선택 성공 정점에서 멈출 지혜 없던 탓

‘불굴의 프랑스(FI)’가 주도한다. 7월 결선투표에서 RN의 과반 확보가 저지될 순 있으나, 중도주의를 꿈꾼 그의 정치적 유산이 극단적 정당들이 좌우하는 지형이 돼버린 건 아이다.

4일 총선을 치르는 영국은 그나마 안정적 리더십(노동당)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300년 된 보수당이, 극우정당이 흡수통합하겠다고 호언하는 대상으로 전락한 건 비극이다. 이 역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잔재다. 정치적 운이 좋았던 그는 1970년대부터 보수당을 내분해 휩싸이게 해 온 유럽연합(EU)에 관한 입장에서 자신이 정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다.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민투표로 막았기에 브렉시트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행운의 여신은 그러나 외면했다. 보수당은 그로 인해 지리멸렬 해졌다.

요즘 정치판에 한껏 도취한 분들이 많다. 정치에 내재한 위험천만한 비극성도 자각했으면 한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 참고로 JP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타다 남은 흥한 나뭇등걸”이라고 했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인쇄(제1차) 제1차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aquaviwater.com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179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249

알칼리수 \$219

알칼리수 \$23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 간편 설치

##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HAPPY JULY 4th~!



JUL. 3rd - JUL. 11th, 2024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가격  
새삼가격살  
더더더

3.99



FAMILY PACK LIMIT 3 PACK FRESH

바베큐 생삼겹살  
PORK BELLY BBQ

8.99 - 3.99/LB

LIMIT 3 PACK FRESH

생삼겹살 수육  
PORK SINGLE RIB BELLY CHUNK

8.99 - 3.99/LB

FRESH

피개용 생삼겹살  
PORK SINGLE RIB BELLY CHOP

5.99 - 3.99/LB

Richmond, VA  
701 W. Broad St.  
Richmond, VA 23214

Sterling, VA  
3011 Upper Middlebrook Rd.  
Sterling, VA 22154

Centreville, VA  
2500 Commons Square  
Centreville, VA 20121

Danville, VA  
1800 Westwood Dr.  
Danville, VA 22011

Springdale, VA  
20140 Parkway  
Springdale, VA 22152

Ballston, VA  
4300 Ballston Commons  
Ballston, VA 22015

Blount City, MD  
2001 Parkway Mall  
Blount City, MD 21017

Catonsville, MD  
8800 Catonsville Rd.  
Catonsville, MD 21038

Rockville, MD  
20170 Rockville Pike  
Rockville, MD 20850

Gaithersburg, MD  
22116 Gaithersburg  
Gaithersburg, MD 20878

Belton, NJ  
1701 Belton Rd.  
Belton, NJ 07004

Tampa, FL  
7700 Bruce B. Downs Blvd.  
Tampa, FL 33647

Orlando, FL  
2101 International Dr.  
Orlando, FL 32835

본지름은 오일과 기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추가 비용 또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July 3, 2024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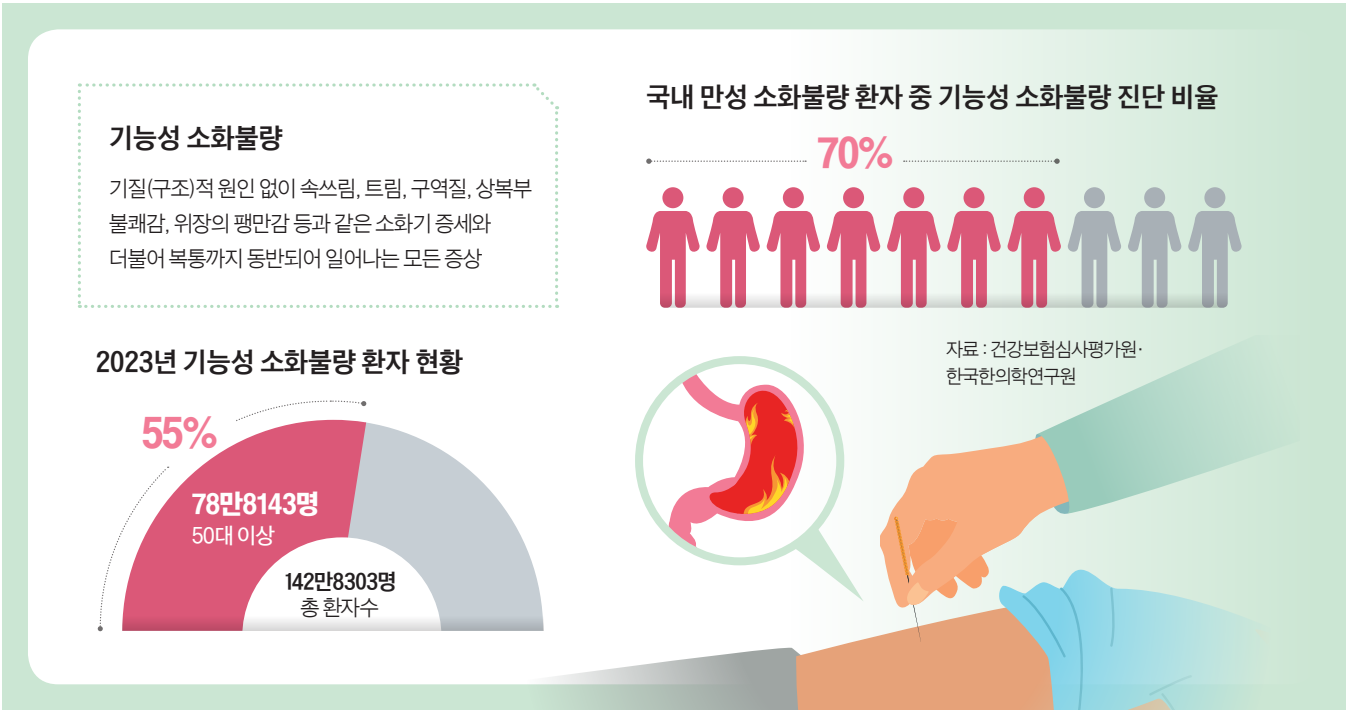
## 과도한 냉방 땀 위·장 기능 약화, 기능성 소화불량 부른다

올해 여름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지난 21일 서울에서는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또 19일 광주 지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37.2도)을 맞이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에서는 초여름임에도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관측됐다. 통상 6월엔 30도를 잘 넘지 않는 대관령에서도 올해만 3번 이상 30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보통 6월 중순에 장마가 찾아오고 7월 하순쯤 끝난 뒤 30도를 오르내리는 짝퉁더위가 시작됐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여름 날씨의 공식은 깨진 지 오래다.

7월이면 가마솥더위 예보도 있다. 이처럼 더위가 지속하면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겨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 상승과 활동량 저하로 에너지를 섭취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식사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여름날 식사를 하면 땀에서는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신체는 급격한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렙틴'이라는 식욕억제호르몬을 분비한다. 높은 습도로 인한 불쾌한 무더위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려해 위장 운동 기능과 소화 효소 분비를 저하하는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인삼·백출 등 포함된 향사육군자탕 효과  
입맛이 떨어지고 날이 덥다는 이유로 자극적이거나 찬 음식을 과도하게 즐길 경우, 기능 저하가 발생한 위나 장에서 탈이날 수 있다. 특히 열대야가 찾아오면 야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밤에 찬 식음료를 섭취하거나 미처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채 잠을 청한다면 자율신경에 혼란이 발생하고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다.

무더운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 외에도 강한 에어컨 바람을 선호하게 된다. 냉



전국 환자 143만명, 50대가 55%  
밤에 찬음료 즐기는 것도 원인  
체중 줄고 두통·만성피로 등 야기  
침 치료 땀 복부 불편감 등 호전

방기기의 과도한 사용도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운 날씨에 바깥 온도와 실내와의 온도 차가 커지면서 추위를 쉽게 느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위와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소화 운동이 억제된다.

요즘처럼 습도까지 높아지는 장마 시즌에는 세균이 증식하기 쉽다. 세균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도 소화불량, 장염, 설사 질환의 빈도가 잦아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설사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성 이질 발생 위험이 17.5%, 평균 강수량이 1mm 늘어날 때마다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불량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위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 위궤양, 악성종양이 원인으로 진단되는 일도 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은 '기능성 소화불량'이 대부분이다. 실

제로 국내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 가운데 약 70% 이상은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될 만큼 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수는 2023년 약 14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50대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 중 5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체중 감소와 더불어 두통, 만성피로, 무기력 등을 야기하여 일상생활의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소화제를 복용해도 차도가 없고 위내시경 등 검사도 했음에도 별다른 구조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한약 처방과 침 치료 등을 통해 해결한다. 한약은 생약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기능이 떨어진 위장에 부담을 적게 준다는 장점이 있다.

문자영 천안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4면 '소화불량'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춘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임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 채여혜 한의원

##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 귓속이 마를 날 없는 여름... 물놀이·샤워 후엔 면봉 대신 바람으로 말려야

**여름철 귀 건강 가이드** 여름은 귀 건강에 안 좋은 계절이다. 계절 자체가 습한 데다 물놀이나 잦은 샤워 등으로 귓속이 마를 날이 별로 없다. 그만큼 염증과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월 17만 명 선이던 외이도염 환자 수는 7~8월 23만~26만 명 수준으로 연중 가장 많다. 오히려 귀를 깨끗하게 하려고 면봉이나 귀이개로 귓속을 청소하다 병을 키운다. 여름철 귀 건강을 지키는 솔루션을 알아봤다. 류정훈 기자



귀 건강 키워드는 '건조' '귀지' (약)산성'이다. 귓속 피부가 건조한 상태여야 세균이 번식하기 어렵고, 약산성이 유지돼야 세균이 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염증이나 감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귀의 불순물이나 때'쯤으로 여기는 귀지는 알고 보면 귓속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 주는 일등공신이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최원주 교수는 "평소 귀 안은 산성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귀지가 산성도를 유지해 주고 세균이나 외부 물질로부터 방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물 찬 느낌, 통증있으면 진료받아야**  
그런데 여름엔 어떤가. 물놀이, 그리고 더위로 인해 샤워를 자주 하다 보면 귓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물기를 없애고 청결하게 하겠다고 면봉으로 귀지까지 말끔하게 제거한다. 어찌 보면 귀 건강엔 최악의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이런저런 귀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이도염이다. 외이도는 귀의 입구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통로를 의미한다. 외이도염은 여기에 세균성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귓속이 젖어 있는 느낌이 들거나 딱딱하기도 하고, 귀 주변으로 통증

이 생기면서 붓기도 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악성 외이도염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순 외이도염이 골조직, 심하면 두개저(뇌를 받치는 뼈)까지 번지는 경우를 말한다. 최 교수는 "귀에 통증이 있거나 냄새가 난다면 세균에 감염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외이도염이 의심되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관리되지 않고 상태가 악성으로 나빠지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더 심해지면 치사율도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외이도염이 만성화하면 청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 염증과 면봉 등으로 인한 자극이 반복돼 귓속 구조가 변형되면서 귀구멍이 좁아진 결과다. 레슬링 선수의 귓바퀴가 지속적인 압박과 마찰로 '만두귀'가 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외이도염은 이염액(귀에 넣는 항생제 물약), 좀 심해지면 먹는 항생제로 치료하지만 이 경우엔 귀구멍을 넓혀주는 수술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질환은 이진균증이다. 한마디로 귀 곰팡이이다. 보청기나 오랜 이어폰 사용 등으로 귓속의 습한 환경이 지속하면서 진균에 감염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외이도염이 습한 환경으로 인한 염증이려면 이진균증은 습한 환경

“7~8월 외이도염 환자 연중 최대 귓속 건조해야 세균 번식 어려워 귀지는 가급적 제거 않는 게 좋아”

“으로 인한 곰팡이”라며 “여름에 확실히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여름엔 또 만성 중이염이 악화하기 쉽다. 만성 중이염 환자의 경우 반복적인 염증으로 고막에 구멍이 생긴 상태인데 습한 환경이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하거나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만성 중이염 환자는 정기적인 점검과 항생제 치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선 수술이 필요하다.

**외이도염 만성화면 청력까지 저하**  
따라서 여름엔 이들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최대한 귓속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귓속에 물이 들어갔을 땐 고개를 기울여 탈탈 털어 물을 빼내고 자연 바람이나 선풍기 등으로 말리는 걸 추천한다.

귀지는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 게 좋다. 귀지로 귀구멍이 막혀 잘 들리지 않거나 바스락거리는 불편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빼내려 할 필요는 없다.

면봉이나 귀이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한다. 귀에 상처가 나기 쉽고, 귀지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귀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면봉을 무리하게 사용하다 고막까지 손상된 사례가 적지 않다. 최 교수는 "면봉 사용은 어떻게 보면 외이도에 상처를

내거나 고막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면봉으로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많다"며 "면봉만 버려도 이비인후과 환자가 확 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감기는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제때 치료해야 한다. 또 삼출성 중이염은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행기를 탈 땐 껌을 씹거나 물을 마셔 압력을 풀어 귀가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물놀이는 가급적 수질 관리가 잘 되는 곳에서 하는 것을 권한다. 수질이 안 좋은 물에 있는 세균이 상처를 통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수질과 귀 질환이 직결된다고 할 순 없지만 관계가 없지는 않다"며 "아무래도 더러운 물은 상처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고 말했다.

**병원리포트** 김헌식·성장욱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팀

## ‘제2의 암’ 전이암 촉진하는 단백질 HPK1 최초 발견

국내 연구진이 전이암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타깃인 HPK1 단백질을 최초로 발견해 전이암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미생물학 교실 김헌식·병리과 성장욱 교수팀이 최근 암 전이 과정에서 자연살해(NK)세포의 특정 단백질인 HPK1이 과하게 발현하면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소실돼 암 전이가 촉진되는 것을 최초로 규명했다. 이는 전이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암으로도 불리는 전이암은 형질 변화가 빈번해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고 치료 효과도 적어 5년 생존율이 20%대로 매우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암 전이 과정 메커니즘을 규명해 전이암 타깃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암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다양한 면역 세포 중 자연살해세포가 면역 체계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연살해세포 기능이 소실되면 암의 전이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있었지만, 자연살해세포 기능이 어떤 기전으로 소실되는지 규명되지 않았다.

김헌식·성장욱 교수팀은 자연살해세포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표적을 발굴하던 중, 암 전이가 일어날 때 혈액 및 전이 장소의 자연살해세포 기능이 소실되고 HPK1이 과발현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역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원발성 악성종양(원발암)이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장기인 폐 전이 상황을 가정하고, 자연살해세포가 HPK1을 과발현하도록 실험쥐의 형질을 전환했다. 그 후 흑색종 암세포를 정맥 주사해 HPK1 발현 정도에 따른 암세포의 폐 전이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HPK1이 과발현되면 폐뿐 아니라 다양한 장기로의 암 전이가 촉

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PK1은 원발암보다 전이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HPK1의 과발현은 원발암의 성장보다 전이암의 진행을 더 악화시켰으며, 유전자 분석 결과 전이암 환자의 생존율 감소 및 면역관문 억제제 저항성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반대로 HPK1이 결핍되면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암 전이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뿐만 아니라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 효과도 더욱 증가해 HPK1 조절이 실제 전이암 환자 치료에 유망한 표적임을 확인했다. 김헌식 교수는 "암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암

세포 전이를 예방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의 과제가 됐지만, 전이암과 관련된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저하 기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HPK1 단백질이 전이암에서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PK1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한다면 전이암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피인용지수=15.1)'에 최근 게재됐다. 권선미 기자

#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13.3%	42.9%	2.3%	0.0%
매우좋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러기 힘들다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toes cramps 발가락 뻣음

발목 뻣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포리백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 곰팡이와 전쟁, 집 안 물기 즉시 제거하고 배수구엔 뜨거운 물

**실내 곰팡이 똑똑하게 물리치는 법** 곰팡이를 걱정해야 할 때가 왔다.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실내 구석구석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하기 쉽다. 특히 뽀뽀한 장마가 시작되면 곰팡이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욕실과 주방, 침실 등 집 안 곳곳에 퍼져 가족 건강을 위협한다. 우리 몸의 호흡기로 침투해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집은 먹고 자고 쉬는 가족의 생활 공간이다. 애초에 곰팡이 발생을 막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 곰팡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 실천하면 좋은 청결 생활법을 살펴봤다.

신영경 기자

**욕실**  
샤워 후엔 문 활짝 열어 습기 제거  
욕실은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실내 공간이다. 늘 물기가 묻어 있고 습해 눅눅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씨앗(포자)이 높은 습도와 수분, 적정 온도를 만나면 벽이나 바닥 어디서든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 특히 욕실 타일 틈새나 실리콘 이음새 주변은 곰팡이의 주요 서식지다. 만약 이곳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전용 세제를 이용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베이킹소다와 식초 섞은 물을 마른행주에 적서 닦아내는 것도 방법이다. 곰팡이는 보이는 즉시 없애야 한다.



물에 희석해 곰팡이 부분을 닦아두면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모, 실크, 가죽은 곰팡이로 망가지면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고급 섬유는 세탁소에 맡겨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곰팡이를 제거했다면 그다음은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욕실은 습기 조절이 관건이다. 습기를 없애야 곰팡이가 다시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샤워할 땐 환풍기를 틀고, 샤워 직후엔 스위치를 이용해 욕실 벽과 바닥에 묻어 있는 물기를 제거한다. 샤워 후엔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욕실 문을 활짝 열어둔다. 틈틈이 욕실 방향으로 선풍기를 트는 것도 내부 습기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주방은 음식이 닿는 장소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주방의 식기, 도마, 행주는 주기적으로 햇빛에 살균·소독해야 한다. 싱크대 배수구에 수시로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곰팡이가 피는 걸 막을 수 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베이킹소다를 2컵 정도 배수구에 뿌리고 뜨겁게 데운 식초를 1컵 뿌린 뒤 뚜껑을 덮고 다음 날 물로 씻어내면 살균과 탈취에 효과적이다. 음식을 먹을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음식물에 곰팡이가 생기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아깝다는 이유로 곰팡이가 핀 일부만 떼어내고 먹기도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당장은 깨끗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들어 있을 수 있다. 먹다 남은 밥이나 고기, 음료 등은 냉장고에서 최대 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거실·방 안**  
가전·가구 통풍 잘되게 관리해야  
거실과 방 안은 여러 가전·가구가 자리 잡고 있는 생활 공간이다. 가전·가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 쉽다. 그중에서도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과 제습기는 곰팡이가 잘 생기는 가전제품으로 꼽힌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기기 내부에 먼지와 습기가 쌓이면서 각종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기기를 켤 때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곰팡이가 생겼을 확률이 높다.

곰팡이 관리를 위해선 정기적인 청소가 답이다. 에어컨과 제습기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해 곰팡이가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필터를 청소하기만 해도 곰팡이를 70% 이상 줄일 수 있다. 필터를 청소할 땐 우선 청소기나 칫솔 등으로 먼지를 털어낸다. 필터에 먼지가 많다면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닦고 그늘에 완전히 말려야 한다. 청소 중에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퍼져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 필터를 청소할 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평소 가구를 배치할 땐 벽에 딱 붙이기 보단 살짝 떨어뜨려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다. 가구를 바짝 붙이면 벽면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잘 생긴다. 가구의 틈 사이사이에 습기 제거 효과가 좋은 신문지나 숯 등을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옷은 늘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옷장도 통풍이 관건이다. 통풍이 잘 되도록 옷장을 활짝 열어 선풍기를 틀고, 여유롭게 옷을 수납한다. 비닐로 옷을 덮어놓으면 습기가 찰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옷장에 습기 제거제와 참숯을 함께 넣어두면 좋다. 먼 옷에 생긴 곰팡이는 락스와 소다를

**피부**  
발 건조한 상태 유지해 무좀 예방  
곰팡이는 집 안뿐 아니라 피부에도 잘 번식한다. 손발톱과 얼굴, 몸 등 어느 곳이든 생겨날 수 있다. 무좀은 곰팡이로 야기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다. 무좀의 경우 발 무좀이 가장 흔하다. 피부 각질 조각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게 특징이다. 각질은 실내에서 맨발로 걸어 다닐 때 잘 떨어지며, 발수건이나 실내화 등을 통해서도 옮는다. 따라서 가족 중 무좀 환자가 있다면 전파를 막기 위해 발에 닿는 물품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무좀을 막기 위해선 평소 발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축축한 상태에 오래 머문 발은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발을 꼭 조이는 신발이나 땀에 젖은 양말을 오랫동안 신으면 무좀 감염 위험을 높인다. 되도록 통풍에 용이한 기능성 소재 신발 여러 개를 번갈아 신는 게 좋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되는 면양말을 이용한다.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종일 신발을 신어야 할 땐 새 양말로 자주 갈아신는다. 발을 씻을 땐 향균 비누를 사용해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닦은 뒤 물기를 바짝 말린다. 오래된 신발과 양말은 버리는 게 가장 좋지만, 더 사용할 거라면 항진균제 분말을 이용해 세척 과정을 자주 거친다.

도움말=이우진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 류혜승 인천힘찬종합병원 호흡기내과 진료과장

**주방**  
소다·식초 활용해 배수구 청소  
주방도 물기가 마르지 않는 곳이다. 욕실만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최적의 장소다. 주방 싱크대와 배수관엔 음식물 찌꺼기까지 있어 곰팡이에 취약하다. 싱크대 주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락스나 곰팡이 제거제를 분무기에 담아 뿌리고, 휴지로 닦아 하루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닦아낸다. 이때 독성이 강한 락스가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무장갑과 마스크 등을 착용해 신체를 보호한다.

Tip

## 여름철 곰팡이 막는 생활 수칙 3가지

### 1 적절한 습도 유지하기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 번식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여름철 실내 적정 습도는 40~60%다. 습도는 에어컨 제습 모드를 활용하거나 제습기 통해 조절한다. 제습기는 에어컨 반대편에 두고 사용하면 습기를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다. 일주일에 1~2번 보일러를 켜 온도를 2~3도 올려주는 것도 집 안 습기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다.

### 2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곰팡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과 틈새에 서식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오랜 시간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실내 곳곳에 퍼지는 건 시간문제다.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하루 2회 3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한다. 잦은 환기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3 살균·소독에 힘쓰기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곰팡이 먹이 되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선 청소를 자주 해 집 안을 청결하게 관리해 줘야 한다. 침구류와 의류 소독도 필수다. 침구류와 의류는 자주 세탁해 햇빛에 바

짝 말려 건조하고, 한 번 착용한 옷은 세탁 후 보관한다.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건과 매트 는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욕실 슬리퍼는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샤워할 때도 슬리퍼를 이용하는 게 좋다.





#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탁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 직원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 “로봇 자궁근종 수술, 외과 전문 종합병원서 진단 후 3일 내 신속·안전하게”

**인터뷰** 윤여울 기쁨병원 로봇 자궁근종센터 부장 “자궁근종은 양성 질환임에도 수술 난도·위험성이 높다. 환자가 2차 병원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쁨병원 로봇 자궁근종센터 윤여울(산부인과 전문의) 부장이 센터의 방향성을 강조한 말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외과 전문 의료기관인 기쁨병원은 올 초 종합병원 승격과 함께 로봇을 부인과 질환으로 확대하며 ‘로봇 자궁근종센터’를 열었다. 진단 후 3일 이내 수술과 일대일 맞춤 치료를 특화했다. 윤여울 부장에게 센터의 역할과 치료 시스템의 의미를 들었다. 이민영 기자

“어렵고 위험한 자궁근종 수술이 많다. 자궁근종 수술 위험도는 암 수술과 비슷할 만큼 높다. 전신 마취를 하며, 근종이 크면 출혈 위험이 커진다. 위치가 자궁 뒤쪽 깊숙한 곳이면 크기가 작아도 접근이 어려워 난도가 높아진다. 골반 안에 있는 장기 특성상 시야 문제 때문에 수술 중 대장·소장과 비뇨기계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양성 질환으로 분류돼 중증 질환은 아니나 치료에 대학병원급 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외과 전문 종합병원의 기대 효과는 뭔가.  
“자궁근종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2차 병원 역할이 중요해졌다. 기쁨병원에는 전문적인 외과 수술 경험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신 MRI·로봇 장비, 외과·산부인과 등 여러 과 의료진이 있다. 자궁근종 수술 환자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인과 질환은 수술 중 타 장기 침범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과와 바로 협의 진료해 대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로봇 수술의 강점이 궁금하다.



기쁨병원 로봇 자궁근종센터 윤여울 부장은 난도 높은 자궁근종 수술에 4세대 다빈치 로봇의 정밀함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인성욱 객원기자

“첫째로 자궁 회복과 가임력 보존에 효과적이다. 자궁은 근육 조직이어서 아기집 기능을 다시 잘 수행하려면 봉합 시 충분한 힘을 가해 튼튼히 꿰매야 한다. 출산 시 강한 압력 때문에 파열 위험이 있어서다. 젓가락 같은 도구의 복강경으로 보는 접근 각도와 힘에 제한이 있다. 둘째로는 개복으로만 가능했던 일부 근종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자궁 뒤쪽 근종은 크기·위치에 따라 복강경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고 개복을 해도 위치 탓에 접근이 힘들 수 있어 수술 정확도가 떨어진다. 셋째로 다발성·거대 근종 제거에 유리하다. 최근 MRI 같은 영상 기술이 발달해 깊숙한 위치의 세세한 근종까지 찾아낸다. 재발 위험이 큰 다발성이면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하는 게 좋으므로 로봇이 효과적인 도구다. 근종 크기가 커 잘라내는 부위가 많아도 로봇으로 출혈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한다. 종합하면 로봇은 개복·복강경

의 장점을 가져온 수술법으로 의사 숙련도를 보조한다. 시야가 좋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수술 부위에 접근하며 충분한 힘으로 자궁근종을 봉합한다.”  
-빠른 수술이 왜 이익인가.  
“진단 후 3일 이내 수술은 치료 지연에 따른 환자 고통을 최소화한다. 근종 수술 전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검사까지 3~4주 소요된다. 기쁨병원에는 응급 판독을 지원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 진료 당일 수술 전 검사를 마친다. 특히 자궁근종은 과다 월경 등 증상 때문에 수술하므로 치료가 지연될수록 환자가 고통받는다. 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근종으로 진단되면 수술을 좀 더 확실하

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궁근종 수술 후 임신 시도까지 회복 기간은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  
-환자와 상담 시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다.  
“환자의 생활 방식을 알면 치료 방향도 달라진다. 산부인과 과거력과 임신 계획뿐 아니라 직업과 근무시간대에 따른 치료 가능 시간, 취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 치료 선택지를 선별한다. 폐경이 어도 심리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염려해 자궁 보존을 원하는 환자가 많다. 환자가 의문점·걱정을 충분히 해소한 상태에서 수술법을 결정하는 것이 부인과에서의 올바른 일대일 맞춤 치료다. 그래야 수술 후 일상에 부담이 덜하다.”

치료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  
“근종이 크거나 개수가 많아도 월경 관련 증상을 일으키지 않거나 폐경이 임박했다면 수술 안 해도 된다. 폐경하면 근종 크기가 줄고 증상을 안 일으킨다. 경과를 관찰하면 된다.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되짚어보면 불필요한 수술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 기쁨병원 로봇 자궁근종센터에는 양성 종양에서부터 암까지 다루는 부인 종양 세부 전문의, 월경·폐경·난임 관련 문제를 보는 부인과 내분비 세부 전문의 2인이 있다. 여러 시각에서 자궁근종에 접근한다는 의미다.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센터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겠다.”

▶1면 ‘소화불량’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약제를 가감해 맞춤 처방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도 가능하며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처방되는 한약으로는 인삼, 백출, 반하, 향부자, 사인, 진피, 대추 등의 한약재로 구성된 향사육군자탕을 꼽을 수 있다. 인삼과 백출은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반하는 노폐물 제거, 향부자와 사인은 소화가 되지 않고 뭉친 것을 풀고 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사포닌이 풍부한 인삼은 여름철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이다. 소화제 정교한 원료로도 유명한 한약재인 진피(귤껍질)는 플라보노이드(Flavonoid) 성분과 정유(精油)를 함유해 위장기능을 개선한다. 또한 대추는 칼슘이 풍부해 멜라토닌 분비에 작용, 여름철 숙면에 도움을 준다.  
한의학의 대표 치료법인 침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즉각적인 소화 개선 효과를 보인다. 주로 다리(족삼리), 손목(내관), 배(중완) 등에 위치한 주요 혈자리에 자침한다. 침 치료의 소화불량 개선 효과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 세계소화기학회에

소개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침 치료를 받은 군은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60%의 호전율을 보였다. 식후 더부룩함, 복부 불편감과 타는 느낌 등의 증상도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다.  
무해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침 치료는 약물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의 SCIE(급 저널 ‘국제산부인과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의 임산부 약 2만명 데이터 분석 결과 임신 중에도 침 치료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산부들은 소화불량을 이유로 침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차가운 커피보다는 미지근한 물 충분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침 치료에 이어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등에 처방되는 한약도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다를 수 있다. 이는 병원 방문 전에 건강보험 적용 한약 처방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손쉽게 알 수 있다. 최대 혜택을 받을 시 기존 지출하던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격언이

있다. 무더위로 소화가 원활하지 않고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한 끼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 기존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소화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따뜻한 국을 먹는 게 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차가운 커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기를 권장한다. 덥다고 활동을 일찍 않는 것보다는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과 가벼운 운동으로 활동량을 유지해야 입맛과 소화능력을 지켜낼 수 있다. 문자영 천안자생한방병원 병원장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mailto: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의학 칼럼

### 보행장애를 동반한 치매 증후군

84세의 남자가 기억력 감퇴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의 기억력은 내원 약 6개월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환자는 평소 애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잘 기억해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환자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내지 못하여 같은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고도 하였다. 환자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려 다시 한적이 많고,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 찾아 헤멘 적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환자의 기억력 문제 외에 필자의 눈에 띈 사실이 있었다. 바로 환자의 걸음걸이였다. 환자의 걸음걸이는

매우 불안하여 중심이 자주 한쪽으로 쏠리곤 하였다.

환자는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상단기 기억 능력의 감소와 함께 시공간 지각의 장애 소견이 보였다. 또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파킨슨병을 시사하는 소견인 팔다리의 경직과 손떨림 증상이 감지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찰 소견으로 환자에게 안구 움직임의 이상 소견, 즉 환자의 경우 머리위로 눈을 치켜뜨는 동작을 할 수 없었다. 계속하여 환자는 여러가지 신경학적 검사들을 받았는데, 환자의 진단

은 인지능력 저하와 운동능력 장애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치매증후군의 하나인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은 퇴행성 뇌 질환의 하나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사람들 가운데 약 10%에 있어서는 후에 파킨슨병이 아닌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이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신경 질환이다. 현재까지 두가지 형태의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이 알려져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파킨슨병 증상과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는 형태와 다른 한 가지는 주로 소뇌 및 운동 신경계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2007년 발표된 요시다박사

의 연구에 의하면 노화 과정에서 세포에 축적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이상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빨리 죽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기억력 감퇴 및 운동 능력의 소실은 정상적인 노화과정의 일부인 경우가 물론 대다수 이겠지만, 만일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과 같은 병적인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면 이에 대한 조기의 정확한 진단만이 최선의 치료와 관리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 열사병,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온열 질환은 기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한 해 약 700여명이 폭염으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한다.

온열 질환은 과도하게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한다. 온열 질환은 증상과 그 심각도에 따라 열사병부터 열경련, 열실신, 열사병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열사병과 열사병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열사병이 발생하면 피로,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에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반면 열사병은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발생하며, 체온이 올라가지만 땀이 나지 않고, 신경계 장애를 동반한다.

열사병과 열사병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 신경계 이상이다. 여기에는 의식 저하, 섬망, 혼수, 발작, 불분명한 발음 등의 증상이 포함되며, 이때는 즉시 911을 불러 응급실로 가야 한다. 열사병을 '집에서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심한 고열은 신체에 심각한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급성 신부전, 근육이 손상돼 장기를 망가뜨리는 횡문근융해증,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유진 박 전문의 할리우드 차병원

온열 질환 취약 계층은 우선 노년층과 영유아다.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 역시 열사병의 위험이 높다. 특히 노년층은 기저 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약은 땀을 잘 흘리지 않도록 하거나, 심혈관계를 방해하거나,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미 몸이 취약한 상태에서 열사병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비만한 사람들과 임신 부도 주의가 필요하다.

젊고 건강한 운동선수들도 열사병에서 안전할 수는 없다. 종종 젊은 운동선수들이 땀병에서 경기가하다가, 혹은 훈련 도중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때는 높은 기온 뿐 아니라 습도도 열사병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야외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항상 기온과 습도를 확인하고, 통풍이 잘되는 소재의 옷을 입고, 충분한 휴식, 수분과 전해질 섭취를 습관화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자들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가족 중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면 자주 연락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냉방 시설 접근이 어렵다면 여러 시나 카운티 정부가 폭염기간 공공시설이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쿨링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방 칼럼

### 발뒤꿈치 찌릿한 통증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내려올 때 첫발을 디디는 순간 갑자기 느끼는 발바닥의 찌릿함이나 극심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몇 걸음을 참고 걸었다니 조금씩 좋아진 경험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 뼈인종골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분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부에 부착되는 강인하고 두꺼운 섬유띠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스프링 역할을 해주어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다.

이런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을 입으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이 질환의 평균 발병 연령은 45세 정도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잘 발생한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해부학적 이상과 무리한 사용이 원인이다.

한방에서는 족저근막염의 원인을 단순히 발바닥의 근막뿐 아니라 하지와 발에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문제로 보고, 하지와 발바닥의 긴장된 인대와 근육을 이완하고 기혈의 순환을 촉진해 염증을 제거하는 침 치료를 한다.

동시에 뼈와 인대를 약화하는 단백질분해효소(MMPs)를 억제하여 관절을 강화하는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

족저근막염에 좋은 스트레칭을 소개한다.

1.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앉은 자리에서 아픈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픈 발과 같은 쪽의 손으로 엄지발가락 부위를 잡아 발등 쪽으로 천천히 올리면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단단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반대쪽 손가락이나 골프공으로



박연정 원장 LA 해성한방병원

단단하게 스트레칭 된 족저근막을 마사지한다. 20초간, 하루에 10세트 이상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2. 얼린 물병을 이용한 마사지: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 아치 밑에 얼린 물병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타듯이 체중을 실어 5~10분가량 앞으로 적당한 압력을 주면서 굴리면, 발바닥 근육 이완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만약 얼린 물병이 없다면 골프공을 활용한다.

3. 계단 단기 운동: 한손으로 난간을 잡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의 앞부분으로만 계단을 딛고 서서 체중으로 뒤꿈치를 눌러주면 된다. 10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한다.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에 좋은 지압점

1. 연골혈: 발안 쪽에 위치하고 복사뼈 아래에 발등과 발바닥 사이 경계선에 움푹 파인 곳에 있는 혈자리

2. 승산혈: 종아리에 위치하고, 종아리에 힘을 줬을 때 근육이 갈려져 움푹 파인 곳으로 정확하게는 오금 주름의 중점과 발꿈치 힘줄이 끝나는 부위를 연결하는 선의 중점이다.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고, 하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발바닥에 무리가 덜 가도록 해주는 혈자리다. 각 혈자리를 3분 정도 마사지 붓이나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마사지한다.

1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섬뜩했던 이 남자, 원래 이렇게 웃겼어?



영화에서 목수 상구(이희준, 위쪽부터)와 재필(이성민)은 대학생 미나(공승연) 등과 악령 소동에 휘말린다. [사진 NEW, BH엔터테인먼트]

“이성민 선배가 풍지머리·태닝 분장까지 하시기에 저도 질세라 부황 자국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경찰 역의 박지환 배우가 첫 촬영 때 우리 외모·연기에 충격받았다더군요.”(이희준)

천만영화 ‘서울의 봄’ 배우 이성민, 넷플릭스 스릴러 ‘살인자o난감’ 이희준의 웃기기 경쟁이 흥행 역주행을 터뜨렸다. 두 사람이 주연한 순제작비 49억원의 오컬트 코미디 영화 ‘헨섬가이즈’(감독 남동협)가 지난달 26일 박스오피스 4위로 개봉한 뒤 닷새 만에 2위로 올라섰다. 닷새 간 누적 관객수는 46만명.

‘헨섬가이즈’는 캐나다 호러 코미디 ‘터커&데일 vs 이블’(2010)을 리메이큰 작품이다. 착한 목수 콤피가 험악한 외모 탓에 연쇄 사망 사건에 휘말리는 B급 코미디에 한국형 오컬트를 섞어냈다.

흥행 비결은 단연 배우들이다. 정치 누아르 ‘남산의 부장들’(2020)의 대통령(이성민)·경호실장(이희준) 등 묵직한 역할을 도맡아온 두 배우가 ‘다 내려놓은’ 코믹 캐릭터를 선보였다.

‘섹시남’ 상구 역의 이희준은 “이번 코미디언이냐?”는 관람객까지 나왔다.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상구는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출 땐 마냥 밝아지는 초긍정 캐릭터다. 개봉 전날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그는 “(극

단 차이무 등) 연극 무대부터 20년간 같이 해온 이성민 배우와 코미디를 함께하는 기회가 신나고 소중한데”면서 “말할 수도 있는 B급 감성 영화에 용기 내준 남 감독님이 고맙다”고 눈을 반짝였다.

“물에 빠진 대학생 미나(공승연)를 구해준 뒤 함께 설거지하는 장면에서 수준급 춤 실력을 보여준다.

“대본엔 ‘상구가 미나한테 춤을 춰준다’밖에 없어서 난감했다. 친한 김철진 안무가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추는 거니까 좋아하는 동작을 그 여자를 위해서만 하면 된다더라. 좋아하는 몸짓을 자신있게 마음껏 했다.”

“숲속 ‘드림 하우스’를 무대로 온갖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

“실제 산장을 지어 촬영·리허설을 하니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박지환 배우는 춤비가 되는 장면에서 너무 이상한 동작을 준비해서 감독이 자체시킴기도 했다. 저와 성민 선배도 거의 모든 장면에서 다른 버전을 시도했다. 다들 의욕에 넘쳤다.(웃음)”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재필(이성민)의 입에서 말벌이 나오는 장면. 현장에서 성민 선배가 (실제론 없는 말벌을) 확 뺏고 날아가는 걸 쳐다볼 때 제일 재밌었다. 상구가 (염소귀신한테 맞고) 날아가는 장면

은 원래 넘어지는 거였는데, 현장에 마침 와이어가 있어서 직접 와이어에 매달려 연기했다. CG(컴퓨터그래픽)가 아니다.”

“상구는 어떤 인물인가.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대사처럼 평화주의자다.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불편하지 않길 바라는 인물이다.”

“극 중 “학생은 아직 안 죽었군요.”라는 상구의 대사는 상대를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한방 먹이는’ 묘한 톤으로 객석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전혀 예상 못 했다. 상구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마음에 진지하게 그렇게 말한 거다. 코미디는 연기가 진지해야 한다. ‘아 이러면 웃기겠지’ 하는 순간 이상해진다.”

“최근엔 연출도 한다고.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은 적이 있는데, 빠져나오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첫 단편 ‘병환의 하루’(2018)를 만들었다. 지금 편집 중인 두 번째 단편은 영화 ‘대학살의 신’과 비슷하게 거실에서 가족끼리 45분간 떠드는 이야기다. 사비 4000만원을 털어 만들었다. 진선규 형 등 20년 지기 배우들, 같이 작품한 스태프들이 참여해줬다. 값야 할 빛이다. 감독할 생각은 없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주 생긴다.”

나원정 기자

## “완벽한 하루? 배우는 그런 날 없어”

영화 ‘퍼펙트 데이즈’ 야쿠쇼 코지  
화장실 청소부로 칸서 남우주연상  
데뷔 46년차 ‘일본의 안성기’ 불러  
“은퇴할 때까지 아등바등 살 것”

일본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68)가 공중 화장실 청소부 역할로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차지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가 3일 개봉했다. 한국 개봉에 앞서 e메일 인터뷰로 만난 야쿠쇼 코지는 이 영화에 대해 “한 영화의 깊이가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보여준 경험이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배우 인생을 이어나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베를린 천사의 시’(1987)의 빔 벤더스(78) 감독이 일본 ‘도쿄 화

장실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제안 받아, 도쿄 시부야 지역 공중화장실 17곳에서 단 17일간 촬영해 완성했다.

1978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야쿠쇼 코지는 일본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 스타다. 춤으로 제2의 인생을 여는 회사원을 그려 세계적으로 흥행한 ‘월위댄스’(1996) 때는 ‘일본의 안성기’로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퍼펙트 데이즈’에서 그가 연기한 화장실 청소부 히라야마는 과묵하고 규칙적인 남자다. 매일 공중 화장실에 출근해 맨손으로 담배꽂이를 줍고, 변기 옆에 무릎을 꿇고 보이지 않는 데까지 닦아낸다. 퇴근 후 대중목욕탕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헌책방에서 산 소설책을 읽다 잠드는 게 낙이다. 연락이 끊겼던 조카딸이 갑자기 찾아

오면서, 그의 일상은 뜻밖의 변화를 겪는다.

대사가 거의 없는 연기가 어렵지 않았느냐고 묻자 야쿠쇼 코지는 “히라야마는 독서가다. 많은 말을 품고 있지만, 선불리 대화로 이어지는 걸 성가쳐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기를 위해 청소부에게 청소일을 배웠다는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이 아름답다고 새삼 느꼈다”고 돌아봤다.

‘퍼펙트 데이즈’의 엔딩은 강렬하다.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히라야마가 충혈된 눈으로 울지만 웃는 얼굴이기도 하다. 그가 외면해 온 과거와, 현재의 삶을 함축한 듯한 표정이다. 이에 대해 야쿠쇼 코지는 “따로 연기 지시



야쿠쇼 코지가 공중화장실 청소부 히라야마 역할을 맡아 지난해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야기다. [사진 티캐스트]

는 없었다”며 “그때까지 쌓아온 시간이 있고, 니나 시몬의 혼이 담긴 노래(‘Feeling Good’)를 실제로 틀어놓고 촬영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히라야마는 매일이 ‘퍼펙트 데이(Perfect Day)’, 완벽한 하루라 여기며

살아간다. 이런 연기를 한 날은 배우에게도 완벽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는 “배우로 살아가는 한 완벽한 하루란 것은 없다”며 “은퇴를 할 때까지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 같다”고 했다.

나원정 기자

#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 ‘필드의 풍운아’ 허인회 “미니 드라이버 세컨드샷 거리 욕심에 꺼낸 무기”

지난달 30일 KPGA 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둔 허인회(가운데). 경기를 마친 뒤 아들 이수(왼쪽)와 아내 육은채(왼쪽)씨와 함께 기쁨을 나눴다. 허인회는 “골프는 장갑 벗을 때까지 모른다”고 했다. [사진 KPGA]

‘필드의 풍운아’ 허인회(37)가 30일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에서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켰다. 프로 16년 차의 허인회는 5타 차의 열세를 뒤집고 연장 두 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역전 우승했다. 우승도 우승이지만, 역전승을 거두기까지 과정이 드라마틱했다. 우승이 틀날인 1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승 소감과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골프는 장갑 벗을 때까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더군요. 이 평범한 격언이 주는 교훈을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쾌활하기 짝이 없었다. 전날 22세의 신예 장유빈을 연장전 끝에 제압하고 역전 우승을 차지한 허인회는 “(정규 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차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저녁으로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빨리 코스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돌아가 연장전을 준비했다”면서 “마음을 비운 상태여서 그런지 훌개분하게 승부를 즐겼다. 우승은 정말 기뻐지만, 팬들이 대회장을 많이 찾지 않았던 점

은 유일하게 아쉬웠다”고 했다.

허인회는 이 대회 3라운드까지 11언더파 공동 9위를 달렸다. 16언더파 단독선두 장유빈과는 5타 차였다. 우승은 생각지도 않았고, ‘톱10에만 들자’는 마음으로 최종 라운드를 준비했다. 허인회는 “주위에선 5타 차라고 하는데 사실 타수 차는 더 컸다. 내가 3번 홀에서 보기를 하는 순간, 챔피언 조의 (장)유빈이가 1번 홀에서 버디를 잡더라. 그때는 7타 차였다. 속으로 ‘야, 유빈이가 우승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허인회는 마지막 날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타를 줄여 함께 17언더파로 경기를 마쳤다. 그는 “경기를 끝내고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피 유빈이와 타수 차이가 있어서 퇴근하려고 했는데 KPGA에서 급하게 나를 찾더라. 급하게 연장전을 준비했는데 우승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18번 홀(파5)에서 열린 1차 연장전. 허인회는 세컨드 샷 지점에서 페어웨이 우드가 아닌 ‘미니 드라이버’라는 생소한 클럽을 휘둘렀다. 자칫하면 그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 우승 장유빈과 연장 접전끝에 역전 승리 저녁 먹으러 가려던 중 연장전 호출 우드 대신 드라이버, 승부수 적중 “골프, 장갑 벗을때까지 모르겠네요”**

**허인회는...**  
•생년월일: 1987년 7월 24일  
•신장-체중: 1m80cm-80kg  
•출신교: 서라벌고-한국체대  
•프로 데뷔: 2008년  
•통산 우승: KPGA 투어 6승, JGTO 1승  
•평균 비거리: 300.54야드  
•클럽 스펙: 드라이버(로프트 6도-샤프트 40g X) 미니 드라이버(로프트 11도-샤프트 60g X)



런 앞 해저드에 공을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미니 드라이버로 샷을 했다. 그리고는 가볍게 워터 해저드를 넘겨 그린 앞에 공을 떨어뜨렸다. TV 중계를 하던 해설자는 “연장전에 미니 드라이버를 사용하다니 정말 놀랐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 시도를 리스펙(존경)한다”고 했다.

허인회는 “골프를 하면서 가끔은 3번 우드보다 더 멀리 보내고 싶을 때가 있었다. 드라이버보다 헤드가 조금 작은 미니 드라이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내 클럽을 만들어주는 용품회사(캘러웨이)에는 없는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후원사에서 미니 드라이버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바로 주문해 이번 대회부터 처음 쓰기 시작했다. 마침 클럽72 하늘코스는 세컨드 샷 지점에서 거리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잦아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다. 평소 쓰던 페어웨이 우드는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인회는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 로프트 6도의 드라이버를 쓴다. 서른일곱의 나이에도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

리가 300.54야드(전체 23위)나 된다. 그래도 허인회는 “거리 욕심은 끝이 없다”면서 6도 로프트를 고집한다. 이날은 미니 드라이버라는 또 다른 무기를 들고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성이 강한 허인회는 별명도 많다. 금발로 물들인 장발의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어서 ‘노랑머리’ 또는 ‘야생마’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날 우승한 뒤엔 진지하게 KPGA 투어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허인회는 “2008년 데뷔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KPGA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과거에는 총상금 3~5억원 짜리 작은 대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총상금이 최소 7억원이다. 다른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코스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멋진 장면이 자주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플레이어가 적게 나도록 페어웨이 잔디를 조금 더 짧게 다듬고, 백스핀이 많이 걸리도록 그린 경도를 낮추는 대신 그린 스피드를 바짝 올린다면 갤러리가 박수칠 만한 샷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고봉준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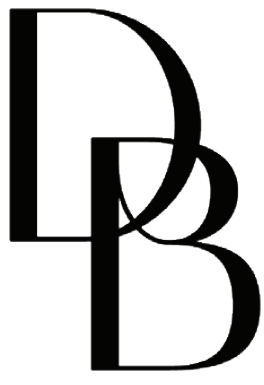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삼성마트 북대우천 안이점(+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찰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타빌 롯데/안이점(+mart)과 찰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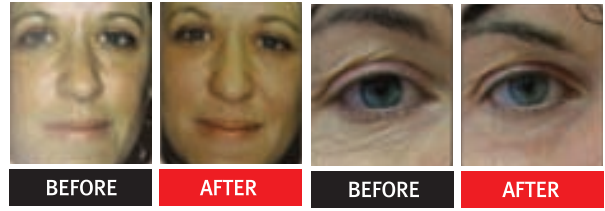


# DONNA BELLA

LASER MEDSPA®

WWW.DONNABELLALASER.COM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FDA 승인을 받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당신의 10년을 돌려 드립니다.



눈썹 → 눈썹 문신 제거  
Eyebrow Tattoo Laser Removal

머리 → 헤어 복원  
Laser Hair Restoration

얼굴 → 피부 레이저 치료 & 기미 제거  
Fractional CO2 Laser, Laser Melasma Treatment



쥐젖 / 피부점 / 사마귀  
Skin Tag / Skin Mole / Wart

복부 → 바디 콘투어링 & 체중 감량 프로그램  
Laser Body Contouring & Weight Loss Program

질 → 질 회춘술  
Non Surgical Laser Vaginal Rejuvenation  
질 건조증  
Vaginal Dryness  
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

다리 & 겨드랑이 → 레이저 헤어 제모  
Laser Hair Removal

다리 → 노출 혈관 제거  
Non Surgical Laser Vascular Treatments

발 → 발톱 무좀 치료  
Laser Toenail Fungus Treatment

Open Special H. Carbon Toning  
~~\$350~~ → \$99



- REDUCING THE SIGNS OF PREMATURE AGING
- ERASING OR FADING YELLOW/BROWN PIGMENTATION
- SHRINKING SCARS (MUST BE YOUNG SCARS) OF A SMALL DIAMETER
- REDUCING FINE LINES AND WRINKLES
- IMPROVING SKIN INTEGRITY AND RADIANCE
- STIMULATING COLLAGEN GROWTH FOR FIRMER, PLUMPER SKIN
- REDUCING OILY SKIN OR EXFOLIATING DRY SKIN

**Dr. 황지연**  
Jiyon Hwang-Ki, MD

BOARD CERTIFIED,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MD 락빌**

**T. 301.417.4975**

15200 Shady Grove Rd. Suite 108  
Rockville, MD 20850

Mon ~ Fri: 8:00am ~ 4:3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애쉬번**

**T. 703.443.4713**

21785 Filigree Ct. Suite 206  
Ashburn, VA 20147

Mon ~ Fri: 9:30am ~ 6:0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페어팩스**

**OPENING JULY 2024**

13135 Lee Jackson Hwy. Suite 205  
Chantilly, VA 22033

**\*직원 모집: Esthetician, Receptionist, Manager 그리고 NP or PA**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친구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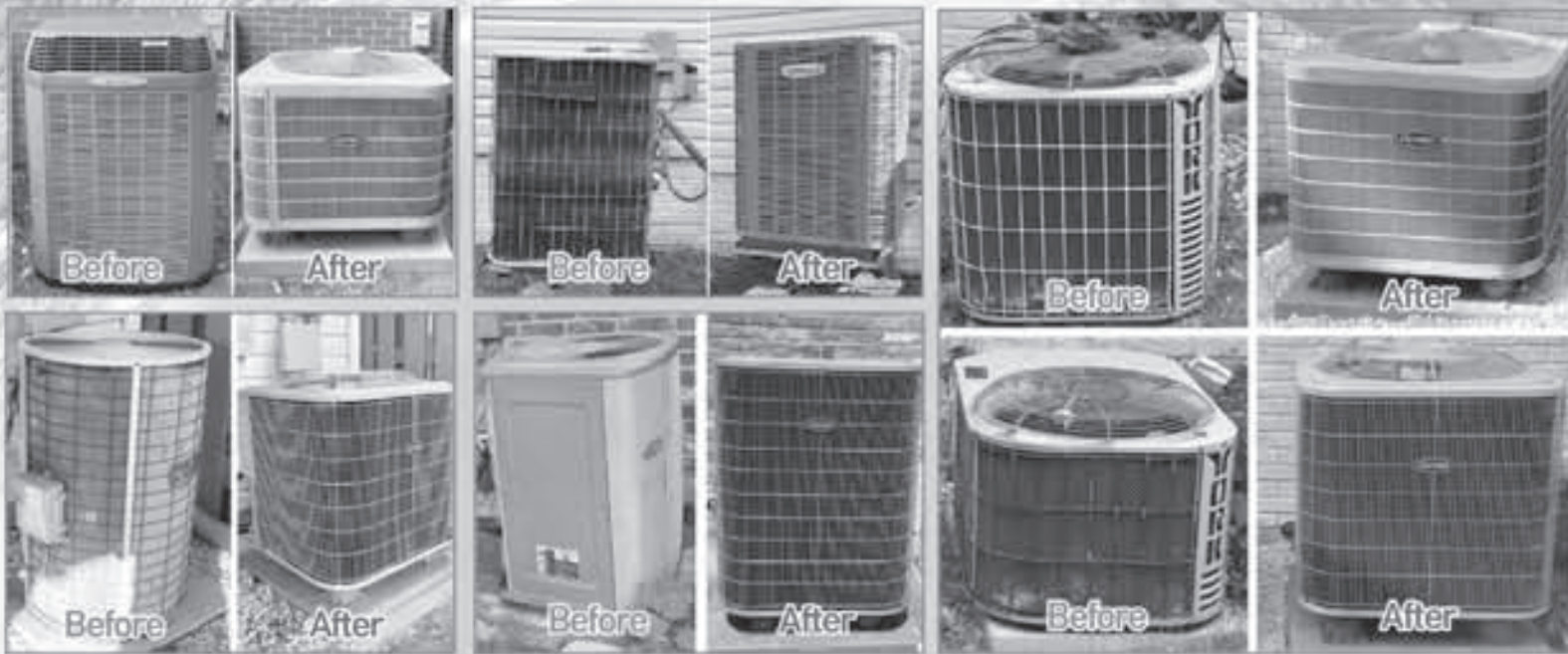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iversal)

7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 703.929.9601

## 보석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Platinum)      결혼 예물 셋팅 전문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판매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수리상담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mailto: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Irene: So how are you Randy?  
아이린: 그래 어떻게 지내 랜디?  
Randy: I'm good. And yourself?  
랜디: 좋아. 난?  
Irene: I'm good.  
아이린: 난 좋아.  
Randy: It was great running into you at the mall yesterday.  
랜디: 어제 샤픽 몰에서 만나서 반가웠어.

Irene: Yes, I was so surprised to see you.  
아이린: 응. 보게 돼서 놀랐어.  
Randy: Do you still work downtown?  
랜디: 아직도 다운타운에서 일해?  
Irene: Yes, I'm still working at the bank. And you?  
아이린: 응. 아직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 너는?  
Randy: I'm teaching English at a private school near downtown.  
랜디: 나는 다운타운 근처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Irene: You don't say?  
아이린: 정말?  
Randy: Yes. We should grab a bite for lunch sometime.  
랜디: 응. 언제 같이 점심 먹자.

기억할만한 표현  
▶ run into (someone): ~와 마주치다

you don't say; 그게 정말이에요?

(Irene and Randy are having coffee...)  
(아이린과 랜디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I ran into my teacher at the supermarket today."  
(오늘 슈퍼마켓에서 우리 선생님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 do you (or does one) still ...?: 아직도 ~합니까?  
"Do you still have that old car you used to drive?"  
(예전에 몰던 그 오래된 차 아직도 운전하세요?)  
▶ grab a bite: (구어체) 뭘 먹다  
"Do you want to grab a bite at a restaurant by the beach?"  
(바닷가에 있는 식당으로 뭘 먹으러 갈래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 열쇠

(1)뺨(뺨)을 바꾸고 태(胎)를 바꾸어 씹.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 (4)일을 하지 않는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씹 (7)땅이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괴어 있는 곳 (8)나는 듯이 빠르게 달리는 범 (9)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11)증권 시세가 약간 하락함. □보□ (13)호리병박으로 만든 바가지 (14)대의 땅속줄기에서 돌아나는 어린썩 (15)껍질을 벗기고 말린 감 (16)물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18)이 세상이 아닌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경치. 별천지나 이상향 (20)몹시 교활한 여자 (22)전쟁 때에 적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

에 쓰던 무기 (24)말을 부려 마차나 수레를 모는 사람 (25)눈과 귀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 (26)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론□□

세로 열쇠

(1)기빠서 크게 소리를 치며 날땀 (2)뺨의 속을 채우고 있는 연한 조직. 조직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성원. ~ 당원 (3)끝에 갈매기 모양의 낫쇠가 달려 있는 나팔 모양의 우리나라 고유의 관악기. 날라리. 새납 (4)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5)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6)용과 범이 서로 싸움. 강자끼리 서로 싸움 (10)

작가가 글씨나 그림에 자신의 이름이나 아호를 쓰고 도장을 찍음 (12)얇게 깎은 걸대를 맞붙여서 살을 만든, 접었다 폈다 하게 된 부채 (13)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 (16)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음.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 (17)등산, 낚시, 음악 감상 등 즐기 위하여 하는 일 (19)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움. □조□□ (20)몸이 굽고 동작이 느리며 집 근처의 돌담이나 지붕, 발독의 돌 틈 등에 살면서 새나 쥐를 잡아먹는 뱀 (21)가볍고 방정맞게 야단을 피우는 말이나 행동. ~을 떨다 (23)경기에서 진 사람 (24)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스도쿠

	7		2	8		9		
		2	6					
5	3		9		4			8
		8				7		4
7	5						1	9
9		1				3		
3			8		2		9	5
					9	4		
		9		5	1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9	6	1	5	7	6	8	4
7	8	4	6	9	3	5	1	2
5	6	1	2	4	8	7	9	3
9	2	3	8	7	5	1	4	6
6	1	8	9	2	4	3	5	7
4	5	7	3	6	1	8	2	9
8	7	2	4	1	6	9	3	5
1	4	5	7	3	9	2	6	8
3	9	6	5	8	2	4	7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정월기구 수리/판매점  
30년 한주인 운영, 싼가격  
가든그로브 (714)788-4336

**기타 지역**

**매매** 마용실-LA한타근처  
가격:\$4만(네고가능)  
(818)288-3762

**구인**

**급매 한국택배** FEDEX/ MAILBOX  
AT&T/ SPECTRUM  
11년간 운영, VALLEY 지역  
트래픽/ 포텐셜 많은 장소  
기3만 (213)572-7977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식당 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주방장**  
숙식제공,조리아주지역  
(646)229-270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민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30년 이상된  
**미용재료상**  
안전한 라티노 지역  
역경: 인벤토리만!  
LA 지역  
(818)746-0521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헐트전문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매** Up to 40% 핫셀매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빠른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FBS Solutions** 5분만에 100마일 충전가능 = 300kW

## 앞으로 법적으로 새 상가나 새 아파트에는 EV 충전소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 EV 충전소 설치의 장점

1. 내 땅에서 전기 충전소 설치하면 24시간 수입 창출
2. 트래픽이 많아지고 기다리는 동안 수입 창출 3
3.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높은 Grant 를 받을 확률이 좋다
4. FBS 를 통해 설치 하면 공사비가 타 회사 대비 70% 절약 할수있다

12541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한인최초 미국 굴지의 EV충전소 제조 회사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 할수있습니다  
문의: Jay Park Jaepark2000@yahoo.com  
**213-605-1122, 714-822-7150**  
Sales Agent 모집중 (선착순 인원제한)  
개인땅이나 건물주 연락 바랍니다

##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